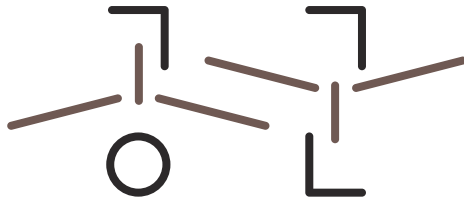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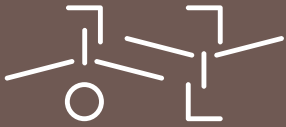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http://afzine.co.kr>



2019
06
4 9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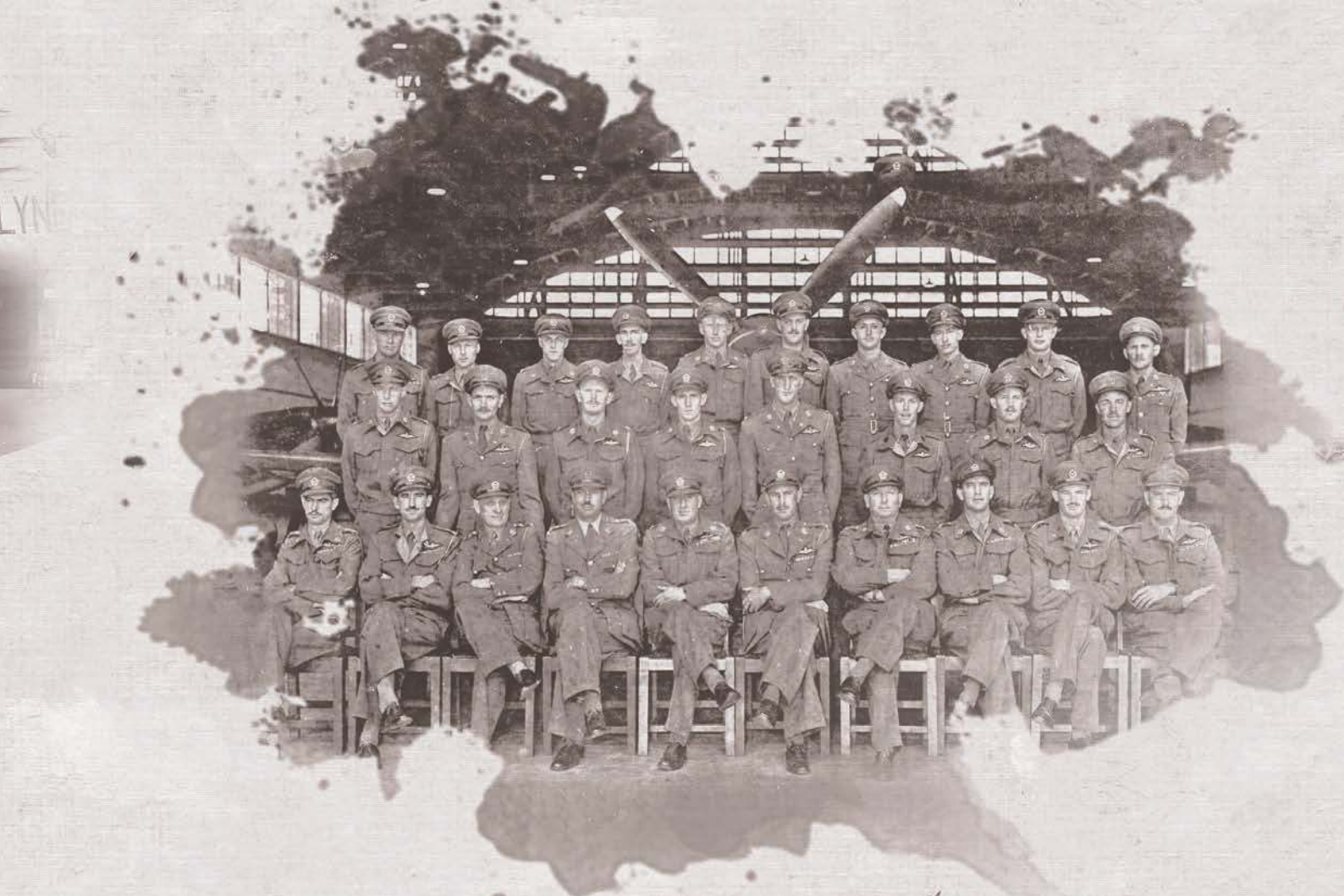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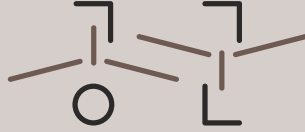
6·25전쟁과 창공의 치타

2013년을 시작으로 월간 『공군』은 6·25전쟁에 공군을 파병한 국가를 방문·취재해 왔습니다. 올해는 7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다녀왔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당시 남아프리카연방)은 UN군 파병국 중 공군만을 파병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창공의 치타(Flying Cheetah)라는 별칭을 가진 남아공 공군 제2비행대대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친 부대였으며, 6·25전쟁에서는 F-51D 무스탕과 F-86F 세이버를 타고 10,000회 이상 출격하여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옳은 일'이라는 확신으로 자원하여 참전한 이들, 머나먼 곳에서 달려와 청춘을 던진 남아공 공군의 이야기를 풍부한 사진자료와 함께 준비했습니다. 4페이지 더 풍성하게 꾸며진 월간 『공군』 6월호와 함께 '호국보훈의 달'의 의미를 되새겨보세요.





창공의 처타(Flying Cheetah)라고 불리는 남아공 공군 제2비행대대의 활약을 다양한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다양한 사진을 기사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기사 : 6 ~ 21쪽)



05	화풍지설	Thank you for your service
06	기획특집	6·25전쟁과 창공의 치타
22	내 옆의 공군인	제5공중기동비행단 이주현 중사
26	그날, 우리 하늘	기억되지 못한 이들을 기리며
28	우리 부대는	제3훈련비행단
30	공군소담	철사
32	공군이 내놓은 아이템	공군이 내놓은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38	지금 이순간!	참모총장 동정 & 공군 소식

42	공군인의 편지	공군인의 편지
44	책 읽는 공군	『개인주의자 선언』 & 『심리학, 자존감을 부탁해』

46	지피지ծ 공군인물	중화민국 공군총령록 속 한국인 구양명, 전상국 비행사
50	우주의 이해	대한민국의 인공위성
52	생활 타이포그래피	행간과 자간, 장평
54	공군인의 마음 건강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무엇인가?
56	첫 독자의 편집후기	『사고 싶은 컬러 팔리는 컬러』
58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노자에게 배우는 '상선약수' 전략
60	생각하는 그림	도박사의 오류
62	기준의 기준	영화관에서 휴대폰을 봐도 될까



표 지(앞) 6·25전쟁에 참전한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그 래 픽 병장 홍인선(미디어콘텐츠과)
표 지(뒤) 자토 일러스트

발 행 일 자 2019년 6월 1일(통권 제492호)
발 행 인 공군참모총장 대장 원인철
편 집 인 공군본부 정훈공보실장 대령 강성구
편 집 감 수 중령 정기완
기 획 · 편 집 대위 이요섭, 7급 조은혜
디자인·인쇄 국군인쇄창(F19050235) (910-4504, 042-553-4504)

※ 본지에 게재된 개인 원고는 공군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service

첸스 일병의 귀환(Taking Chance)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영화의 줄거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美 해병대의 스트로블 중령이 전사자 명단에 자신과 고향이 같은 해병 첸스 일병을 발견하고 그의 유해를 유족에게 인계하는 임무에 자원하게 됩니다. 미 공군 수송기에 실려 이라크로부터 미국 텍사스주 도버 공군기지에 도착한 첸스 일병의 유해를 받아 비행기를 두 번 갈아타고 몇 시간을 차로 달려 첸스 일병의 부모가 살고 있는 와이오밍 주의 작은 마을까지 운구해 가는 과정을 담담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영화는 이 운구 과정 중 우연히 마주치게 되는 평범한 시민들이 전사한 미군 병사에게 보내는 진심어린 조의와 경의를 보여줌으로써 미국이라는 나라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지를 자연스럽게 보여줍니다. 미국인들의 이런 정서는 가끔 국내 언론을 통해서도 접하게 되는데 파병 갔다 민항기 편으로 돌아오는 미군들에게 1등석 손님들이 자신의 자리를 양보했다는 등의 뉴스는 간혹 읽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래전 국방부 출입기자들과 장군들의 만찬자리에 함께 참석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미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 장군이 축배를 제의하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제복 입은 군인들에 대한 애정과 예우가 대단합니다. 한번은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한 여성이 뒤따라 타기에 몇 층을 가는지 묻고 버튼을 눌러주었는데 마침 정복을 입고 있었던 저에게 자연스럽게 “Thank you for your service”라고 말하며 예를 표해 주었습니다. 동맹국 장교인 제게도 군복무에 헌신하는 것에 감사를 표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군은 사기를 먹고 살고 국민의 사랑으로.....” 이 장군은 미국국민과 한국국민을 비교하며 군인에 대해 더 많은 사랑과 존중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축배사를 마무리 했습니다. 자리를 같이한

기자들의 호응은 그리 높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느 기자가 큰 소리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준 서비스에 감사해서 땡큐라고 한 것이 아닙니까?”라고 질문해서 좌중이 웃음바다가 되었지요. 물론 농담이었습니다만 분위기가 조금 어색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요즘도 종종 SNS에는 군인들 스스로 미국인들의 존중과 예우를 받는 미군의 예를 들며 우리 군에 국민들의 존중과 예우가 더 필요함을 주장하는 글을 보게 됩니다. 잘못된 주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으로부터의 사랑과 존중은 우리의 부탁과 요구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이것은 사랑을 구걸하는 모습으로도 비쳐질 수 있겠지요. 우리는 미군이 왜 국민들로부터 저런 예우와 존중을 받는지를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의무복무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이 군인이었거나 군인의 가족으로 생활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군인에 대한 국민들의 존중과 예우가 부족하다면 그것은 오롯이 유니폼을 입고 있는 직업군인들 모두의 책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는 군대와 군인(간부)의 기준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 그 기준에 부합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늘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때로 국민들에게 우리들이 애쓰는 모습을 잘 홍보해야 한다는 말을 듣습니다. 물론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본(本)과 말(末)이 있습니다. 본을 잘 바꾸면 말은 자연스럽게 무성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가 원칙을 지키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바르게 보내는 것에 집중한다면 국민들의 군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봄볕의 꽃잎처럼 자연스럽게 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AF



활주로에 주어진 F-86F Sabre(세이버) 항공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남아공 공군 장병들



6·25전쟁과 창공의 치타

–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의 6·25전쟁 참전기 –

직선거리로 약 16,000km. 대한민국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이의 거리다. 이는 서울에서 부산을 약 32회 왕복하는 거리이며, 한마디로 쉽게 오갈 수 없을 정도로 멀다는 뜻이다.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1950년 당시에는 더욱 그랬다. 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회원국들의 노력을 촉구하자 남아프리카공화국(당시 남아프리카연방, 이하 남아공)은 치열한 논의를 거쳐 파병을 결정한다.



남아공의 더반(Durban)을 출발해 일본으로 가는 배 안에서 촬영된
남아공 공군 장병들의 밝은 모습



기나긴 항해를 마치고 일본에 도착했을 때 촬영된 남아공 공군 장병들



대한민국에 도착한 남아공 장병들. '자유의 문으로'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자유 수호를 위해 위대한 항해의 닻을 올리다

“남아프리카연방에서 한국까지의 거리를 감안했을 때, 남아프리카연방이 6·25전쟁에 직접적으로 참전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 1950년 개최된 UN특별내각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이다. UN도 당시에 남아공에서 대한민국까지 파병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임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남아공은 아프리카에 불어오는 공산화 물결 속에 있었으며 국제적인 입지를 얻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를 피력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 점에서 공산주의 정권으로부터 침략을 받은 남한을 돕는 것은 정치적으로 효과적인 방법이었다. 결국 남아공은 ‘남아공이 제공할 수 있는 최선의 원조는 직접적인 군사 협조’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역사상 최초로 모든 정당의 국회의원들의 찬성 속에 파병을 결의했다. 이렇듯 정부와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1950년 9월 26일, 남아공 공군 소속 207명의 장병들은 치사데인(Tjisadane) 호를 타고 더반을 출발했다. 대규모 인원과 물자, 장비를 수송해야 하기에 항공편이 아닌 배편으로 이동했으며, 무려 6주라는 기간을 항해해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했다. 일본 도쿄 외곽의 존슨(Johnson) 공군 기지에 짐을 풀 남아공 공군은 그곳에서 F-51D 무스탕 항공기로의 전환훈련과 일반적인 전장적응훈련 등을 실시했다.

일당백의 전투조종사들과 그들의 작전들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이 파병한 제2비행대대는 전원이 자원하여 6·25전쟁에 참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영국 공군 소속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활약한 베테랑이 여럿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전쟁수행능력이나 동기부여가 확실했다. 이들은 대부분 스피트 파이어 전투기가 주기종이었으나, 일본에 도착해 미 공군 조종사들로부터 F-51D 무스탕 항공기로 기종 전환 훈련을 받을 때도 어려움이 없었다고 전해진다. 기본적인 적응훈련을 마치고 1950년 11월 16일, 44명의 장병들로 구성된 선발대는 일본을 떠나 한국의 동부산기지(K-9)로 이동했다. 이 중 장교는 13명이었는데, 제2비행대대장과 미 공군으로부터 제공받은 무스탕 항공기를 직접 조종해 동해바다를 건너온 4명의 편대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남아공 공군은 현지 작전환경에 적응하기 전까지 미 공군 조종사와 함께 출격하며 독자적인 임무를 준비했다. 이들의 첫 전투임무는 1950년 11월 19일, 테론(Theron) 사령관과 리파브스키(Lipawsky) 대위가 2명의 미 공군 조종사와 함께 출격하여 수행했다. UN군의 압록강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중지원작전이었다. 6·25전쟁에서 남아공 공군 조종사들의 주된 임무는 적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으며, 이는 이들이 수행한 작전 중 60% 이상을 차지한다. 여기에는 전장에서 적군의 병력은 물론 물자와 장비 등 모든 이동을 지연시키거나 파괴하는 것이 모두 포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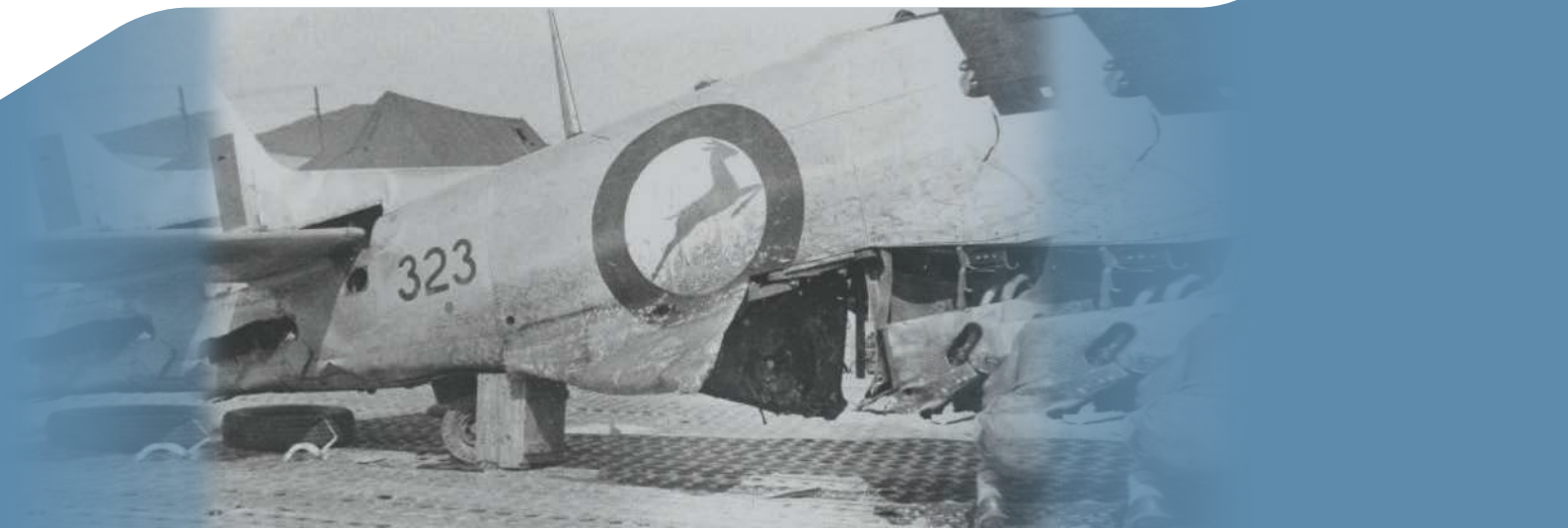


임무 수행을 위해 활주로에 주기된 F-51D 무스탕 항공기들의 능률한 모습



출격하기 위해 차량에 탑승해 활주로로 이동하고 있는 조종사들

상처투성으로 귀환한 F-51D 무스탕 전투기. 파손된 모습이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을 여실히 보여준다.



창공의 치타(Flying Cheetah)

남아프리카공화국은 UN군 파병국 중 공군만을 파병한 유일한 국가다. 앞서 이야기했듯 한국으로 파병된 제2비행대대는 창공의 치타(Flying Cheetah)라는 별칭으로도 유명한데, 제2차 세계대전에서도 뛰어난 활약을 펼친 부대다.

전장에 적응한 이후, 창공의 치타는 명성에 걸맞은 활약을 이어갔다. 전쟁이 진행되며 작전환경이 변화하자 이들은 하루에 40소티¹⁾를 넘나들며 작전을 수행했다. 후에 미 공군이 F-86F 세이버 항공기를 추가로 제공하여 일부 조종사들은 F-51D 무스탕 항공기에서 세이버로 기종 전환을 했으며, 당시 전투 준비가 완료된 항공기가 15대 뿐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들의 비행기록은 매우 위대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 예로 극동군 제5공군 사령관이었던 패트리지(Partridge) 중장은 UN사령부 회의에서 위장된 적군 차량을 색출하고 파괴하는 임무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의 제2비행대대가 가장 뛰어나다고 말했다. 그만큼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조종사들의 활약은 대단했다.



기지에서 '창공의 치타' 문양을 도장하고 있는 장병들



남아공 제2비행대대 '창공의 치타' 문양

1) 소티(Sortie) : 한 대의 항공기가 한 번 이륙하고 착륙하는 것. 통상 엔진 시동부터 비행 후 엔진 정지까지를 의미함.



이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F-51D 무스탕 항공기 옆에 새겨진 '창공의 치타' 문양



남아공 스와트코프(Swartkop) 공군 기지 박물관에 전시된 무스탕 항공기의 복원. 역시 '창공의 치타' 문양이 새겨져 있다.



F-86F 세이버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는 모습

탁월한 비행의 배경, 뛰어난 정비사들

창공의 치타가 15대의 항공기로 하루 40소티를 넘나드는 작전을 지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항공기를 정비하는 정비사들의 대단한 노력과 수고 덕분이다. 임무에 따른 네이팜탄, 로켓포, 기관총 등 다양한 무장 사용, 항공기 연료 보급과 파손 부위 수리 과정에서 정비사들의 활약은 빛났다.

눈발이 서린 추운 겨울이나, 피약별이 내리쬐는 한여름에도 남아공 공군 정비사들의 헌신은 그칠 줄을 몰랐다. 남아공 공군이 수행한 작전의 특성상 새벽과 해질녘에 출격하는 일이 잦았는데, 이를 위해 정비사들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지원임무를 수행했다. 또한 ‘활주로 대기’²⁾가 있는 날이면 즉각적인 지원을 위해 정비사들은 별도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2) 조종사가 엔진이 정지한 항공기에 탑승하여 대기하는 것.



임무 수행 후 기지로 귀환한 항공기를 정비하고 있는 정비사들
항공기가 추위에 꽂꽂 얼어붙어 있다.



항공기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정비사들



75소티의 출격을 달성한 조종사들이 축하를 받고 있다.

전력질주한 치타,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

UN군 소속 극동군으로 30개월 이상 지속된 파견기간 동안, 이들은 주어진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이들의 출격횟수는 총 10,597회(자료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로, 280여 문의 야포 및 대공포 진지를 무력화하고 633대의 차량 및 전차를 파괴하는 등 혁혁한 전과를 세웠다.

한편, 이들의 희생도 만만치 않았다. 통계에 의하면 6·25전쟁 중 1개의 UN군 비행대에서 발생한 사상자(실종자 포함)는 평균 19명이지만,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에서는 총 3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의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이들의 활약은 더 큰 피해를 막아냈으며,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발돋움하는 데 큰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AF}

※ 남아프리카공화국 군역사학회(Die Suid - Afrikaanse Krygshistoriese Vereniging) - 「The South African Air Force in Korea : An Assessment」의 일부 내용을 발췌·인용하였습니다.



1953년 오산기지(K-55)에서 촬영된 남아공 공군 조종사들의 사진. 사진에 인물의 이름이 수기로 적혀있다.



전쟁을 마치고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귀국길에 오르는 참전용사들

옳은 일을 선택한 것, 그뿐이었다 6·25전쟁 참전 조종사 Denis J. Earp 예비역 중장 인터뷰

데니스 존 어프(Denis John Earp, 1930. 6. 7. ~ 2019. 5. 19.). 남아프리카공화국(당시 남아프리카 연방, 이하 남아공)에서 태어나 6·25전쟁에 전투조종사로 참전하였으며, 1951년 임무 수행 중 적군의 포화에 피탄되어 추락 후 불잡혀 2년 간 중공군의 포로로 지냈다. 1953년 풀려나 남아공으로 귀국한 그는 공군에서 전투조종사로 계속 복무했으며, 대한민국에서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1988년에는 남아공 공군참모총장으로 군생활을 마치고 퇴역했다.

69년 전, 21살의 나이로 대한민국 땅을 밟았던 청년 데니스 어프. 이제는 세월이 흘러 노병이 되었으나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조종간을 잡았던 그때의 기억만큼은 생생하다. F-51D 무스탕 전투기로 대한민국의 하늘을 누비며 적진을 휘저었던 그때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본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공군참모총장
재직 시절의 어프 장군

※ 월간 『공군』 편집실은 6월호를 발간하기 직전, 남아공으로부터 어프 장군의 서거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노령의 나이에도 분명하고 또렷했던 말투와 눈빛을 기억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한 숭고한 헌신,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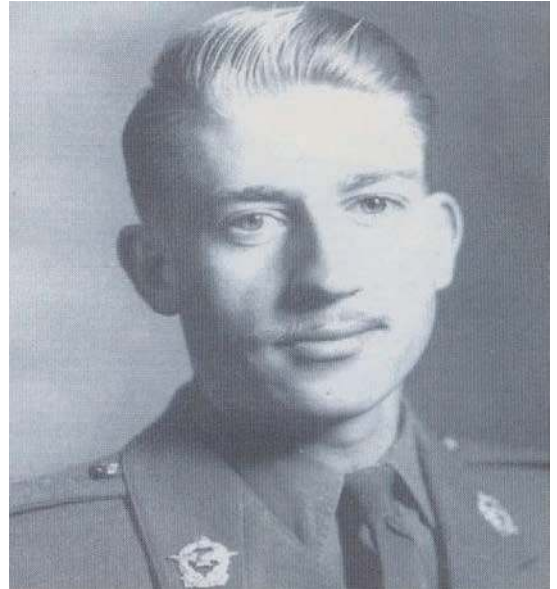
하늘을 날고 싶었던 소년, 공군에 입대하다

어프 장군은 1948년 장교후보생으로 시작해 2년간의 생도 시절을 보내고 1950년 소위로 임관했다. 초창기에는 육군 포병 장교로 분류되었으나, 그는 공군 장교가 되길 희망했고 결국 중앙비행학교에 입교해 비행교육을 받았다.

“어린 시절, 하늘을 나는 꿈을 오랫동안 간직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내가 처한 환경에서 비행을 할 수 있는 길은 딱 두 가지뿐이었어요. 재력이 있는 집안에서 태어나 비싼 항공수업료를 지불하거나, 공군에 입대해 조종사로 비행훈련을 받는 것. 나는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공군에 입대하는 것밖엔 없었습니다.”

1950년 5월, 비행교육을 시작해 한 달이 지났을까, 6·25전쟁이 발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당시 21살의 청년 어프는 타이거 모스(Tiger Moths) 전투기로 한 달가량 훈련받은 게 비행경력 전부였다. 그러나 6·25전쟁에 파병할 공군 조종사를 지원받겠다는 이야기에 주저 없이 손을 들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했던 베테랑 조종사들과 함께 전장을 누비며 조종사로서의 꿈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제2차 세계대전을 보며 자유를 억압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공산주의 정권의 침략에 고통받을 사람들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들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것은 분명 옳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간 이유는 그 뿐이었습니다.”



①

① 어프 장군의 소위 시절 사진. 수려한 외모와 멋들어진 콧수염이 눈에 띈다.

②

② 일본 요코하마 항으로 향하는 배에 탑승하고 있는 남아공 공군 장병들. 왼쪽에서 두 번째가 어프 장군이다.

①

① F-51D 무스탕 항공기로 기종 전환 훈련을 마치고, 어프 장군의 애기(愛機)였던 355호기에 번호를 도장하고 있는 장면

②

② 출격하는 무스탕 항공기. 앞서 이륙한 항공기 편대가 날아가고 있다.

③

③ 남아공 공군 제2비행대대 조종사들. 맨 오른쪽이 어프 장군이다.

④

④ K-10 기지 막사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프 장군



65번째 비행과 2년의 포로 생활

일본에서의 기종 전환 훈련을 마치고 남아공 공군은 K-10 기지(현재 진해)로 이동했다. 진해에는 미 공군 제12비행대대, 제39비행대대, 제67비행대대 등 3개의 비행대대와 남아공 공군의 제2비행대대까지 총 4개의 대대가 주둔하게 되었고, 이들이 미 공군 제18전투폭격비행단(초기 K-9 동부산지지에 주둔했으나 이후 K-10 진해로 이동)을 구성했다. 중요 임무는 적의 차량과 보급소 등을 파괴해 보급작전을 지연시키거나 건물, 교량, 대공포 진지 등을 파괴해 피해를 입히는 것. 당연히 적의 저항이 거셀 수밖에 없었다.

“남아공 공군은 75회의 출격을 달성한 조종사를 고국으로 보내고 대체 조종사를 다시 파견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64회의 비행을 마칠 때까지만 해도 스스로를 ‘천하무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단 한 발의 피격도 당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했기 때문이죠. 혈기왕성했던 나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5번째 비행에서 4기의 무스탕 편대를 이끌고 폭파 임무를 마친 뒤 기지로 귀환하던 도중, 개성 인근에서 적의 대공포에 피탄되어 전투기 엔진에 불이 붙었고, 결국 전투기를 버리고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낙하산을 타고 떨어진 곳은 적진 한가운데였습니다.”

1951년 9월 27일의 일이다.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남은 비행은 단 10회였다. 당시 함께 편대를 구성했던 조종사는 어프 장군의 비행기가 추락 즉시 폭발했기 때문에, 어프 장군이 전사했다고 보고했다. 낙하산으로 탈출하는 모습을 미처 보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어프 장군은 한동안 실종자가 아닌 전사자로 분류되었다. 약 2년에 걸친 끔찍한 포로 생활의 시작이었다.

끔찍한 2년의 기억

중공군의 심문을 거쳐 어프 장군이 끌려간 곳은 평양 인근의 포로수용소였다. '박 소좌'라는 인민군 장교가 지휘관으로 있던 수용소로, 포로들이 '박(朴)의 궁전'이라는 별칭으로 부르던 곳이었다. 그의 잔혹성은 명성이 높았다. 수도 없는 포로들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고, 그의 UN군 동료들도 마찬가지였다. "평양 북쪽에 우리를 고문하는 비밀장소가 있습니다. 내가 들어갈 때 붙잡혀온 UN군이 21명이었는데 몇 달 뒤 나올 때는 14명만 살아남았어요."

몇 개월 뒤, 그는 다시 압록강 근처의 중공군 포로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다. 혹한 속에 수일을 걸어가는데, 그는 여름 옷을 입고 있는 데다 눈길을 뚫고 가니 그야말로 얼어 죽을 것 같았다고 회고했다. "중공군은 포로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거나 나오되면 현장에서 사살했어요. 버티는 것도 죽음이었고, 좌절하는 것도 죽음이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중공군의 전범재판으로 이미 사형이 선고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날 당장 죽이지는 않았지만 늘 언제 죽을지 모르는 공포가 늘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포로들이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것은 죽 두 그릇이 전부였다. 깨끗한 물도 없었다. 오염된 물을 그냥 마셔 질병의 위협에 쉽게 노출되어 있었다. 영하 40도로 떨어지는 한겨울 혹한 속에 손발이 팽팡 묶인 채 흙구덩이 속에서 동사 직전까지 방치되거나 발가벗겨진 채 양동이로 물세례를 받는 모진 고문도 당했다. 이곳에 수용된 미군, 영국군, 터키군, 네덜란드군, 프랑스군, 필리핀군, 호주군 등 동료 UN군과 국군 장병도 같은 처지였다. 어프 장군은 1953년 8월 3일 포로교환으로 풀려날 때까지 이곳에서 고통받았다.

"모진 시간을 보냈지만 대한민국으로 가겠다는 선택은 분명 옳은 것이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6·25전쟁에 참전해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싸웠던 것을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6·25전쟁. 이제는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가 사회의 주류를 이루었지만 어찌서인지 전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낯설지는 않다. 우리가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그 시간 속에는 멀고 먼 곳에서 날아와 청춘을 던진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결코 우리만의 몫이 아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것,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자유와 번영을 누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당연히 가져야 할 의무이자 책임이다. **AF**



①

① 인터뷰 진행 중 질문을 경청하고 있는 어프 장군
② 백선엽 장군(당시 프랑스 대사)(좌)로부터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고 있는 어프 장군(우)

②



글
소령 백호열
(문화홍보과)

남아프리카공화국 현지 취재기

월간 『공군』 취재팀은 남아프리카공화국 공군의 참전기를 취재하기 위해 현지로 날아갔다. 인천에서 아부다비까지 9시간을 비행한 후, 다시 10시간을 더 날아 드디어 요하네스버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이렇게 멀리 있는 나라에서 ‘옳은 일’이라는 신념 하나로 달려와 준 참전용사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피어올랐다.

한국전참전용사협회장 디르크 루 회장과 함께하다

현지 취재 일정은 현지 무관 김정훈 해.중령과 디르크 루 한국전참전용사협회장의 도움을 받았다. 따뜻한 환대와 친절한 안내 덕분에 낮은 땅에서도 문제없이 취재를 진행했다. 루 회장은 6·25전쟁에 군수장교로 참전한 요하네스 루(Johannes E. Louw)의 아들로써, 본인도 남아공 공군에서 군수장교로 근무하다 대령으로 예편한 후 지금은 대학에서 재직 중이다. 그는 참전용사들의 고통화로 인해 후손으로서의 처음으로 회장을 맡게 되었으며, 취임 이후 참전용사들을 직접 방문하여 6·25전쟁에 관련된 자료와 이야기를 수집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루 회장의 집에 방문했을 때 전쟁 당시 촬영된 사진의 이야기를 직접 들을 수 있었다. 그는 현재도 남아공 공군의 6·25전쟁 참전에 관련된 책을 집필하고 있는 중이다. 또 이번 현지취재 일정 중에는 대부분을 동행해 주었는데 유니온 빌딩의 추모의 벽과 스와트코프(Swartkop) 공군 기지 인근의 공군기념관에서는 전사자와 실종자의 넋을 기리기 위해 함께 추모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했다.

유니온빌딩의 추모의 벽

프리토리아 유니온빌딩에는 여러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실종된 이들을 기리는 ‘추모의 벽’이 있다. 6·25전쟁도 마찬가지로 기리고 있어서 가장 먼저 방문했다. 명패의 KOREA 중 알파벳 O가 떨어져 있는데 철로 만들어진 글씨를 떼어다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곳곳에 훼손된 흔적이 많았는데 매우 의미있는 공간이 잘 관리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느꼈다. “훼손된 벽을 왜 보수하지 않느냐.”고 물어보자 “이건 백인들의 역사이기 때문.”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는 남아공의 정치와 관련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라는 인종차별 정책이 시행되었던 남아공은 1994년 넬슨 만델라가 흑인 최초로 집권에 성공한 이후, 흑백갈등은 ‘명목적으로’ 종지부를 찍었다. 인종 갈등에서 감정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음을 현지에서 느낄 수 있었는데, 거주지역이 분명하게 나뉘어 있는 것은 물론, 식당에서도 백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식당과 흑인들이 주로 방문하는 식당이 구분됐다. 정부나 군역시 마찬가지였다. 6·25전쟁이 발발하던 시기에 흑인은 군에 입대할 수 없었고, 정부 수반은 물론 군 수뇌부에 포진한 인물들이 모두 백인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흑인이 남아공 정부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군역시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과거 백인이 집권하던 시기를 매우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었으며,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떠올리는 형태와 유사하다. 이로 인해 6·25전쟁에 참전한 기록 역시 ‘백인의 역사’로 치부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 취재팀은 현지 도착 후 바로 프리토리아로 이동했다. 남아공은 수도가 세 개인데 행정수도는 프리토리아, 입법수도는 케이프타운, 사법수도는 블룸폰테인이다.
- ▶ 프리토리아의 유니온 빌딩은 남아공 정부청사 및 대통령 집무실인 동시에 매우 유명한 건축물이다.
- ▶ 유니온 빌딩에 있는 추모의 벽은 전사자 및 실종자를 전쟁별로 구분해놓았다. 관리가 잘 되어있지 않은 것이 안타깝다.





▲ 스와트코프 기지 내에 위치한 공군박물관
▲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F-51D 무스탕. 6·25전쟁 당시와 똑같이 도색해 두었다.

스와트코프(Swartkop) 공군 기지 내 공군박물관

프리티리아에 위치한 스와트코프 공군 기지에는 공군박물관이 있다. 스와트코프 기지는 남아공 공군 최초의 비행기지로 역사가 가장 깊은 곳이기도 하다. 박물관은 여러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각각의 건물마다 시대별로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남아공 공군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었다. 박물관에는 무스탕 항공기와 무스탕 벽화도 전시되어 있는데, 무스탕은 대한민국 공군에게도 매우 의미 깊은 항공기이기 가슴이 뭉클해졌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무스탕 항공기에는 기체번호 325와 함께 6·25전쟁 당시와 같은 도색이 되어있다. 다만 실제 6·25전쟁에서 활약한 기체는 아니며, 실제 325호는 전쟁 중 격추되었다. 남아공 공군은 현재도 2대의 무스탕을 행사용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실제 참전조종사가 조종을 하기도 한다.

스와트코프 공군 기지 인근의 공군기념관


다음 날에는 스와트코프 공군 기지 인근에 위치한 공군기념관을 방문했다. 이곳은 6·25전쟁을 비롯하여 여러 전쟁에서 전사한 남아공 공군 장병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으며, 매년 5월에 추모행사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남아공 공군이 생각보다 많은 전쟁에 참전했음을 알 수 있었고, 전쟁이 이들에게 가까이 있었음을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일정에 동행했던 참전협회장은 전사자 명단이 새겨진 비석 앞에서 한참을 물끄러미 보더니 한 이름을 가리키며 6·25전쟁 이후에 남아공 공군이 참전한 전쟁에서 자신의 사촌도 전사했음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건물에는 세 개의 날개 조형물 장식이 있고, 중앙에는 전사자들의 영령을 기리는 세노타프(그리스어로 '비어있는 묘'라는 뜻, 실제로는 시체가 매장되어 있지 않다)가 자리하고 있다. 건물의 벽면을 따라서 전사자 명단이 새겨진 패가 걸려 있는데, 유니온빌딩에서 본 추모의 벽에 비해 잘 관리되어 있으며 6·25전쟁 전사자 명단을 한국어로도 기록해두어 더 친숙한 느낌이었다. 취재진과 루 회장은 전사자 명패 앞에서 경례를 하고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다. 세노타프의 벽면에는 "PER ASPERA AD ASTRA"와 "VINNIGER AS ARENDE WAS HULLE STERKER AS LEEUS" 라는 라틴어 문장이 두 개가 새겨져 있다. 이는 각각 "고난을 지나 별이 된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했다."라는 뜻이다.

처음 취재를 준비할 때, 취재진에게 남아공이란 '낯설고 먼 나라'였다. 그러나 취재를 거치면서 '마음의 거리'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가슴이 숙연해지는 희생과 헌신의 이야기들을 듣고 난 후, 남아공은 단순한 취재지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앞으로 지구 반대편 그 땅에 다시 가지는 못할지언정, 남아공에서 담아온 뜨거운 감동은 오래도록 식지 않을 것이다. AF



▲ 스와트코프(Swartkop) 공군 기지 인근 공군기념관
▲ 한국어가 함께 적혀있는 6·25전쟁 전사자명단



약 6주간의 긴 항해를 마치고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해
배에서 내리고 있는 남아공 공군 장병들

그들의 눈에 비친 대한민국 展

전쟁은 참혹한 것이지만, 인간은 전쟁보다 강하다. 포화 속에서도 삶은 이어지고, 잿빛 연기 속에서도 생명은 꽃을 피운다. 어느 때보다 혹독한 전쟁의 시기에서도 얼굴에 피어나는 미소는 위대하다. 여기 잠시나마 그 시절을 느끼게 해 줄 사진들을 소

개한다. 이 중 몇몇 사진들은 6·25전쟁에 남아공 공군 군수장교로 참전했던 에벤 루(Eben Louw) 대령이 촬영한 필름을 복원한 것이다. 몇몇 사진에 더해진 감동적인 이야기는 덤이다. 독자 여러분에게 잠시 시간여행을 선물한다.



포즈를 취하고 있는 남아공 공군 장병들. 이들은 모두 정비, 군수 등 지원요원들이다.



한 장병이 물레방아를 직접 밟으며 환하게 웃고 있다. 당시 군인들은 식량으로 사용될 작물을 직접 재배하거나 기지 주변 농부들의 도움을 받기도 했다고 전해진다.



기지 바로 옆 개울가에서 촬영된 사진. 뒤로 항공기와 수많은 페드럼통이 보인다. 임무를 마치면 이들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기도 하고, 더위가 심한 날에는 물놀이를 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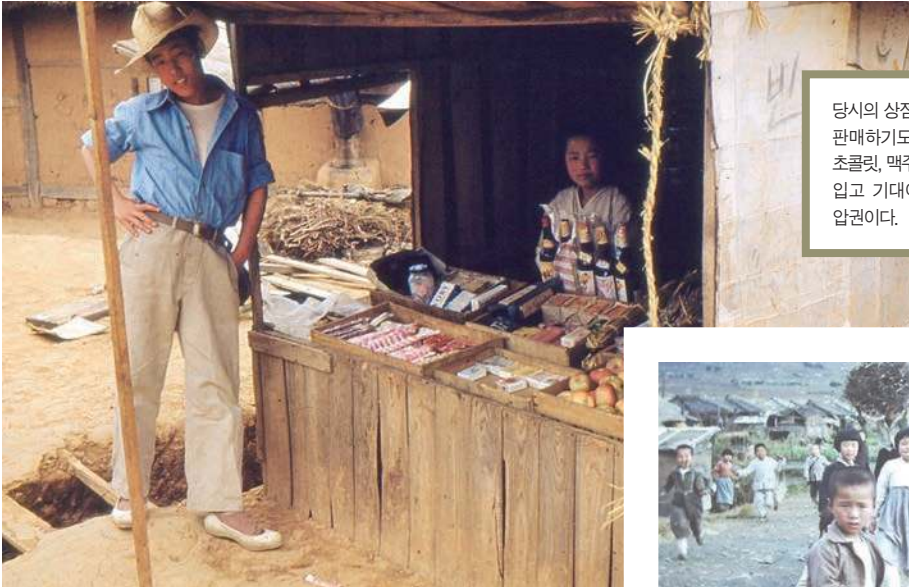


왼쪽에서 두 번째 장병이 손에 들고 있는 편지의 내용은 한국으로 오기 전 임신한 그의 아내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다는 기쁜 소식이다. 그를 축하하기 위해 동료 장병들이 축배를 들고 있다.

01	02
03	05
04	05

01. 출격하기 위해 활주로에서 대기하고 있는 조종사들. 옷차림으로 당시의 추위가 짐작된다.
02. 참호 속에서. 왼쪽부터 Tim Harahura, Eben Louw, 미상, Ted Flemmer, Burt Kriel. 모두 남아공 공군 장병들이다.
03. 트럭을 타고 시내에 나간 장병들. 군용트럭의 페타이어를 이용해 만든 수레가 보인다.
04. 물길을 내기 위해 보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맨 앞 인물이 물고 있는 공방대가 인상적이다.
05. 1952년 크리스마스에 고아원을 방문한 남아공 공군 장교들. 뒷줄 맨 왼쪽 Smits 대위, 왼쪽에서 두 번째 Du Toit 대령 등.





당시의 상점. 군부대에서 흘러나온 상품들을 판매하기도 한다. 럭키 스트라이크 담배와 초콜릿, 맥주도 눈에 띈다. 그러나 푸른 셔츠를 입고 기대어 선 남성의 패션 센스가 단연 압권이다.



길가에 모여 있는 어린이들. 학교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는 모습으로 보인다.



겨울날 낡은 듯해도 각기 다른 형태와 색깔의 옷을 입은 어린 아이들. 전봇대와 많은 인파로 봐서는 마을의 광장쯤으로 보인다.



마을 어귀에서 환한 얼굴로 머리에 짐과 항아리를 이고 가는 아낙. 당시 가옥의 형태도 엿볼 수 있다.



제5화 제5공중기동비행단 장비정비대대
폭발물처리반 이주현 중사(항과고 29기)

LIVE PAGE

내 옆의 공군인

공군의 이름으로 보내는
땀과 열정의 시간들.
우리들의 영웅
내 옆의 공군인을 만나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장비정비대대 폭발물처리반 이주현 중사(항과고 29기)



▲ 밤 슈트(Bomb Suit)를 입은 이 중사가 폭발물로 의심되는 상자에 다가가 특수장비를 활용하여 폭발물처리 훈련을 하고 있다.



▲ 장구를 착용하는 모습

자신의 임무가 폭발물처리사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빨간 선이나 파란 선을 자르시는 거냐?”라고 묻는다고 한다. 하지만 그런 폭탄은 없다. 폭탄이 터지기 위해서는 신관(기폭장치)이 작동해야 하고 폭발물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신관을 처리해야만 한다. 결국 폭발물처리란 폭탄의 종류를 식별하고 그에 따라 신관을 처리하는 것이다. 얼마 전 부산의 공사장에서 폭발물이 발견되었다. 일제강점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100kg의 불발탄이었다. 폭발할 경우 반경 70m, 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하면 반경 400m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수준이다. 오랜 시간 묻혀있던 터라 폭탄과 흙이 엉겨 붙어서 폭탄의 종류를 식별하기도 쉽지 않았다. 즉, 신관을 처리하려면 폭탄에 묻은 흙부터 제거해야 했다.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폭탄을 자신의 손에 들고 흙을 장시간 동안 제거하여 탄종을 확인하고, 마침내 안전하게 신관을 제거한 이가 있다. 제5공중기동비행단 EOD(Explosive Ordnance Disposal)요원 이주현 중사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현재 하고 있는 일

민간에서 발견되거나 군에서 발생한 폭발물을 처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6·25전쟁 및 일제강점기에 사용됐던 폭탄이 민간에서 발견되면 즉각 출동하여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한 뒤 수거하며, 군에서 훈련 중 폭발물의 잔재나 불발탄이 발생하면 처리합니다. 안전조치를 취한 폭발물들은 모아 두었다가 사격장에서 폭파 작업을 통해 처리합니다. 또한 불시에 발생할 수 있는 테러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언제나 출동할 수 있도록 365일 24시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땅 속에는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에 사용되었던 폭탄들이 아직 많이 매몰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폭탄이 민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한번은 출동하여 안전조치를 하는 중에 어떤 분이 “땅 속에 오래 있던 건데 터지겠어?”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폭발물에 따라서 자칫하면 약간의 충격에도 폭발할 수 있고, 종류에 따라 파괴력도 천차만별입니다. 때문에 폭발물을 처리할 때는 반드시 완벽해야 합니다. EOD요원에게 ‘한 번의 실패란 영원한 실패’니까요.

민간에서 발견되는 폭발물



◀ 정확한 신관 제거를 위해 탄종을 확인하고 있다.

▼ 탄종 확인 후 신관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석고붕대로 고정시키고 있다



멈출 수 없는 도전

불발탄을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폭탄의 종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식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간에서 발견되는 폭탄들은 오랜 기간 매몰되어 있던 경우가 많아 폭탄의 종류를 식별하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폭탄이 제작된 시대와 장소를 뛰어넘는 수준의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테리에는 폭탄이 주로 사용됩니다. 때문에 테리에 대해 공부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 저를 비롯하여 모든 EOD 요원이 대테러안보전공 석사 과정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이번 학기를 끝으로 석사 과정을 마치게 됩니다. 휴무일과 휴식시간을 포기하면서 공부해야 했기에 관두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뜻이 같은 동료들과 함께했기 때문에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폭발물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만큼, 폭발물을 대할 때는 긴장이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폭발물을 처리하는 모든 과정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도 손가락으로 밥을 먹듯이 모든 절차를 몰 흐르듯 수행할 수 있어야 긴장 속에서도 실수하지 않게 되니까요. 또한, 일 년에 두 번씩은 유관기관들과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타군뿐 아니라 경찰특공대, 해양경찰특공대, 관공서(공항/항만 공사) EOD요원들과 함께 테러상황을 가정한 폭발물 처리 훈련을 하며 신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완벽을 위한 반복 훈련

반장님과 함께 ▶
불발탄 비군사처리 장면 ▼




불발탄을 폭파하다

민간이나 군에서 수거한 폭발물은 한 곳에 모아 불발탄 비군사처리를 합니다. 즉, 폭발물을 폭파하여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것인데요. EOD교육 이수 후 첫 번째 임무였던 불발탄 비군사처리의 순간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수거한 폭발물에 폭약을 설치하고 약 5,000파운드¹⁾에 육박하는 양의 폭탄을 폭파시켰을 때, 하늘로 올라가는 버섯 모양의 구름과 이후 폭풍(爆風)으로 인한 진동을 통해 폭탄에 대한 위험성을 다시 실감하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임무를 완벽하게 처리했다는 시원한 감정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가장 존경하는 분은 현재 같이 근무하고 있는 반장님입니다. 공군 EOD 교관으로 10년 넘게 일하셨고, 미군에서 실시하는 EOD 정규과정도 이수 하셨을 뿐 아니라 이라크전도 참전하셨습니다. 때문에 반장님께 배우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반장님께 귀찮을 만큼 많은 질문을 하는데도 항상 열정적이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반장님께서 'EOD는 가족이다.'라고 자주 말씀하십니다. 다른 특기들도 마찬가지로겠지만, EOD 역시 완벽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서로간의 가족 같은 신뢰가 필수니까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

'최고보다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EOD에는 최고(最古)의 전문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폭탄의 기술이 발전하듯이 EOD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최신의 정보와 노하우를 익혀야 하니까요.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맡은바 임무에 최선을 다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군생활의 마지막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1) 약 2,300kg으로, 아무런 안전장치 없는 곳에서 폭발 시 반경 1.7km가량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날, 우리 하늘

기억되지 못한 이들을 기리며



▲ 공군사관학교의 임택순 대위 동상. 알려진 역사는 물론 아직까지 묻혀 있는 인물과 사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스물 네 살의 젊음을 조국에 바친 하늘의 용사가 있다. 즉 지난 6일 동해안 전진기지의 제○전투비행단(飛行團)에서 출격명령을 받고 용약(勇躍) 기지를 출발한 임 중위는 국군 지상군 전면 고성(高城) 남방 「구성면」 지구에서 적 보병부대를 포착하여 과감한 공격을 가하던 중 적의 지상포화로 인하여 산화하였는데 임 중위는 경기중학(京畿中學) 출신으로 공군사관학교 1기생으로 금년 1월 23일 초출격(初出擊)을 한 이래 항상 적진 공격에 선두에서 활약하던 유능한 조종사였다.

휴전을 넉 달 남짓 앞둔 1953년 3월 6일, 한 전투조종사가 육군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출격했다가 장렬히 전사하였다. 「경향신문」은 이 청년 조종사의 죽음을 위와 같이 짙막한 기사로 전하고 있다. 열흘 뒤인 16일, 공군은 장례식을 거행하고 이어서 그를 추모하는 특별 좌담회를 개최한다. 공군본부 정훈감실이 주도한 이 자리에 유가족은 물론 동기와 후배, 소속 비행단장, 학창시절의 은사와 동창 등이 참석해 애도를 함께하였다. 이어 5월에 발간된 「코메트」는 좌담회의 전문을 게재하기도 하였다.

전사 후 대위로 추서되고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이 조종사의 이름은 임택순(任宅淳). 이후 그의 죽음은 6·25전쟁과 공군의 역사에서 '사관학교 출신 최초 전사 전투조종사'로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공군사 : 공군 창군과 6·25전쟁」(1집 개정판, 2011)은 임택순 대위를 "공군사관학교 출신 조종사 중 최초의 전사자(공사 1기)"로

명기하고 있으며, 「공군사관학교 50년사 : 1949~1999」 역시 동기생의 술회와 본인의 자필 일기를 곁들이면서 "1기생 출신 조종사들 중 최초의 전사자"라는 사실을 거듭 확인하고 있다. 지금도 공군사관학교의 위국헌신로에는 영원한 빛 추모비, 故 박명렬·박인철 부자(父子) 조종사 흉상과 함께 임택순 대위의 동상이 오가는 생도들의 발길을 멈추게 하고 있다.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는 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 오히려 익히 알려진 역사와 인물에 대한 기억을 일상적인 의례로 간과할 가능성을 경계하면서, 혹여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국가를 위해 스러져 간 이들의 이야기가 여전히 어딘가에 묻혀 있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초'나 '조종사' 또는 '출신' 등의 의미는 그것대로 존중하면서도, 때로는 이 단서 조건으로 인해 생겨난 경계들 밖으로

시야를 넓힐 줄 알아야 한다. 대개의 인간사(人間事)가 그러하듯이 전쟁과 그 역사도 이면을 뜯어보려는 노력이 있어야만 그 실체에 도달할 수는 없을지언정 최대한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수사를 걷어내고 보면 6·25전쟁의 도처에서 살신성인과 헌신의 모습을 몸소 보여준 이들을 만날 수 있다. 마땅히 기록하고 기억해야 할 이들의 행적은 그 형식이 반드시 죽음이 아니어도 무방하며, 장렬함을 굳이 동반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 지금까지 6·25전쟁 동안 보여준 공군인의 활약과 업적을 서술해 온 방식은 앞서 말한 몇 가지 단서 조건들을 전제로 하고 있다. 역사에 등장하는 모든 사건과 인물을 낱낱이 기록할 수는 없다는 점을 참작하더라도, 6·25전쟁기의 공군인을 기억하는 방식에는 모종의 편중이 상존한다. 예컨대 「공군사 : 공군 창군과 6·25전쟁」은 당시 역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각종 자료를 부록으로 첨부하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것이 '6·25전쟁 중 전사자 명부'이다. 여기에는 전사한 조종사 27명, 장교 4명, 부사관 및 병사 51명, 군무원 2명의 이름이 전사 일자와 지역 등과 함께 올라 있다. 기록의 성실함에도 불구하고 이 명부는 다른 자료들을 교차 확인하여 재검증해야 한다. 당시 전황과 관련된 각종 일지나 목록과 비교하면 상당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또한 미처 '전사'로 규정되지 못한 죽음들도 누락되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수기로 작성된 「전사자·순직자 명부」는 이 누락을 메워 줄 여러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전쟁 기간 중 '순직'한 이들을 조종사, 장교, 부사관, 병사, 군무원, 생도 등으로 나누어 충실히 기록하고 있다. 계급과 신분, 병과를 불문하고 죽음을 무릅쓴 이들의 이야기를 최대한 복원하는 것, 이것이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전사'와 '순직' 사이에 읽히는 죽음의 서열화를 원천봉쇄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전사자·순직자 명부」와 함께 「공군일지(1948~1953)」를 옆에 놓고 읽으면 그간 알지 못했던 기록들을 더욱

풍부하게 마주할 수 있다. 1953년 1월 13일자 기록에는 임택순 대위의 '최초 전사'보다 두 달 앞서 안타까운 목숨을 하늘에 바친 차진준(車鎭駿) 대위가 등장한다.

제1기 사관 출신 조종학생 중위 차진준 F-51 제31호기로 비행훈련 중 17시경 경남 창원군 구사면 동남방 3km 해상에 추락하여 애기(愛機)와 더불어 산화

'순직' 조종사로 기록된 차진준 대위는 임택순을 필두로 한 '전사' 조종사 장창갑, 김현일, 고흥수 대위에 비해 낮은 이름이다. 하지만 그의 죽음에 다른 값을 매길 수 없음은 자명하다. 그는 6·25전쟁 기간 중에 자신이 맡은 임무인 비행훈련에 전념하다 아까운 생명을 잃었다. 죽음을 지척에 두고 훈련에 임했던 그가 목표로 삼았던 종착지가 전장의 하늘이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다. 비록 그 하늘에 도달하지 못했고 자신의 장렬함을 직접 보여주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의 죽음 역시 충분히 기억될 만한 가치가 있다. 차진준의 경우만이 아니다. 공군의 역사는 '최초', '사관학교 출신', '조종사' 등의 이름표를 달고선 절대 포괄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장면들로 이루어져 있다. 창설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 맞은 6·25전쟁의 급박했던 초기 국면에서 앞장서 싸운 이들의 출신은 한두 곳으로 수렴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항공기 부족을 통감하고 추락한 항공기의 부속품을 그리모아 새 기체를 조립해 낸 인물은 하늘이 아닌 지상에서 자신의 임무에 매진했던 배덕찬(裵德讚) 중위와 정비수리반원 일동이었다. 그 반원의 면면은 알 수 없으나, 그들이 이름 모를 부사관, 병사, 군무원이었으리라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벌써부터 더위가 걱정되는 6월이다. 그때 초여름의 전장은 어떠한지 감히 짐작하기 어렵다. 그리고 그 뜨거웠을 죽음들을 생각하며 차마 그 선후를 따질 수 없고, 그 임무의 경중을 논할 수는 없다. 남은 자들은 다만 기억의 빈 공간을 조금이나마 채우려고 애쓸 뿐이다. AF



글
소위 정진솔
(3훈비 정훈공보실)



이곳을 거쳐가는 이가 조국의 하늘을 지킨다!

제3훈련비행단

정예조종사의 요람, 제3훈련비행단. 공군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거쳐 가는 곳이다.
'정예 조종사 양성'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제3훈련비행단을 소개한다!



▲ 사천기지에서 L-4 지상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사천기지의 역사

바다가 맞닿아있고 기후가 온후하여 비행훈련의 최적지인 사천기지는 6·25전쟁 발발 후 공군의 전 전투부대가 집결해 한반도의 최남단을 지킨 곳이다. 6·25전쟁 중 사천기지는 지리산 공비토벌작전 등 전시출격의 임무와 전투조종사 양성 임무를 함께 수행하며 한국 공군의 모기지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천기지에 제1전투비행단이 창설되고, 예하의 제10 전투비행전대가 강릉기지로 전진한 후 사천기지는 전투조종사 양성을 위한 훈련기지로 사용되었다. 제3훈련비행단(이하 3훈비)은 1968년 대구에서 처음 창설되어, 1973년부터 사천기지에 터를 잡았다.



▲ KT-1 시뮬레이터는 지상에서도 실전 같은 훈련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대한민국 공군 유일의 훈련비행단

3훈비는 공군의 핵심전력, 정예 조종사 양성을 담당하는 공군 유일의 훈련비행단이다. 공군의 비행교육과정은 차례대로 '입문', '기본', '고등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중 3훈비는 '기본과정'과 '공중기동기' 고등과정을 담당한다. 비행교육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교관과 3,00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을 갖춘 교수진이 담당하고 있으며, 항공기 좌석과 공중 비행환경을 3차원으로 완벽 재현해주는 시뮬레이터, 가상현실(VR) 교육시스템 등 첨단 장비를 통해 공중과 지상 모두에서 실전 같은 훈련이 가능하다.

1) 공중을 통한 전력의 이동 및 배치를 목적으로 설계, 제작, 개조된 항공기. 수송기, 탐색구조헬기, 공중급유기 등이 해당된다.



▲ 30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념 사진

30만 시간 무사고 비행의 대기록

3훈비는 작년 11월 26일, 30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을 달성했다. 30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은 2003년 11월 14일부터 15년 간 4개의 비행교육대대가 함께 이룩한 것으로 이 기간 동안 3훈비에서 기본과정을 수료한 조종사들만 2,500여 명에 이른다. 30만 시간을 거리로 환산하면 약 1억 1,580만km이며, 지구 둘레를 2,886바퀴, 지구와 달 사이를 151회 왕복하는 것과 비슷한 거리다. 이 기록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비행 교육과 우수한 KT-1의 안정성, 과학적인 비행체계, 안정적인 정비지원의 합작품이다.



▲ 뛰어난 성능으로 세계에 인정받은 국산훈련기 KT-1 웅비

국산훈련기 KT-1 웅비

국산 훈련기 KT-1은 3훈비의 대표 기종이며, 기운차고 용기 있게 활동한다는 '웅비'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 일체형 주날개 구조로 이뤄져있어 일부가 파손되더라도 하중을 지탱할 수 있으며, 낮은 실속속도²⁾와 뛰어난 스펀 성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KT-1의 우수성은 세계에 알려져 인도네시아, 터키 등 세계 각지로 77대가 수출되었다. 과거 3훈비는 비행훈련 시 T-33, T-37, T-59 등 외국 훈련기를 운용했으나, 2000년부터는 국산훈련기 KT-1을 도입하게 되었고 2004년 5월부터는 전 비행교육대대가 KT-1으로 기종 전환을 완료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장수사진 촬영 봉사활동 중인 사진 두드림

활기찬 병영문화의 시작!

3훈비는 동아리를 '두드림'이라고 부른다. 두드림이란 '꿈을 꾸라'는 뜻의 'Do Dream'과 한글 '꿈을 두드린다'에서 따온 중의적 표현이다. 현재 3훈비에는 27개의 다양한 두드림(동아리)이 활동하고 있으며, 장병들은 두드림을 통해 취미를 공유하고 전우애를 돈독히 할 뿐만 아니라 이웃사랑까지 실천하고 있다. 3훈비의 '사진 두드림' 장병들은 지역 어르신들의 장수사진 촬영으로 사진과 봉사를 접목시켜 새로운 취미에도 '도전'하고 봉사활동으로 '헌신'의 자세도 배우며 행복한 군 생활을 하고 있다.



▲ 올해로 제16회를 맞이하는 사천에어쇼

하늘로! 우주로!

올해로 16회를 맞이하는 '사천에어쇼'는 사천기지와 그 일대에서 개최된다. 대한민국 공군·경상남도·사천시·KAI가 함께하는 사천에어쇼에서는 블랙이글스 에어쇼와 공군 특수임무요원의 고공강하 시범, 항공우주관련 체험·교육, 공군홍보관, 체험비행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올해는 10월 24일(목)부터 27일(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검색사이트에서 사천에어쇼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AF](#)



단부대마크

별: 비행단의 상징
 3: 부대 고유명칭이며, 곧게 뻗은 활주로를 상징
 토성: 3훈비의 상징인 토성의 이미지를 부각시킴
 * 토성의 흙(土)은 모든 생명이 태어나는 근원, 공군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전력을 상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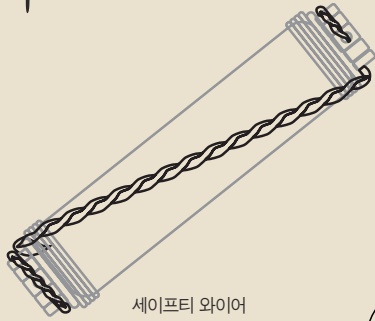
무지개: 부서/병과별 화합과 융화를 상징
 별자리: 북쪽하늘의 별자리로 삶의 이정표를 의미
 * 공군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 상징
 테두리: 공군의 상징색인 암청색으로 일체단결의 상징

부대 역사	'68. 05. 제3훈련비행단 창설(대구)	'04. 05. 전 비행교육대대 KT-1 기종 전환
	'73. 04. 제3훈련비행단 재창설(사천)	'04. 10. 제1회 사천에어쇼 개최
	'82. 10. 공군 최우수부대 선정 대통령 표창 수상	'12. 10. 2012년 국방부장관 부대표창 수상
	'92. 09. T-59 고등훈련기 도입	'18. 11. 비행단 30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 달성
	'00. 09. KT-1 기본훈련기 도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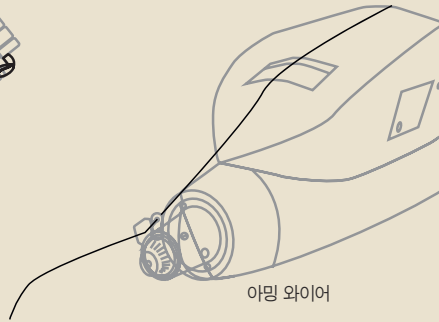
2) 항공기가 양력을 급격히 잃고 하강하게 되는 속도.

공군소담 空軍小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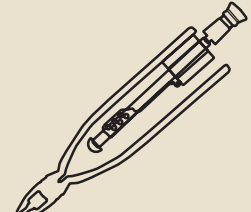
- 철사 -



세이프티 와이어



아밍 와이어



와이어 트위스터
세이프티 와이어 체결시
꼬임을 일정하게 만들어
주는 공구



철사는 어렸을 때부터 자주 접하는 공구 재료이다. 철사를 꼬아서 인형 등을 만들어 본 경험은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철사는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인다. 빵봉지에 쓰이는 작은 것에서부터, 자전거 자물쇠에 쓰이는 와이어 등, 철사는 생활 전반에 다양하게 사용된다. 철사는 공군에서도 다양하게 활용된다. 항공기 엔진에서 발생하는 진동에도 부품이 서로 떨어지지 않게 해주는 '세이프티 와이어(Safety Wire)'와 항공탄 안의 폭약이 불시에 터지지 않게 해주는 안전장비 '아밍 와이어(Arming Wire)'는 모두 철사다. 이번 화에서는 공군에서 다양하게 활용되는 철사에 대해 알아보자.

세이프티 와이어(Safety Wire)

- 항공기 부품을 잡아주는 안전장치!

세이프티 와이어는 항공기 부품의 풀림 및 이탈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한다. 조여져 있는 부품을 서로 묶어줘서, 풀리지 않도록 잡아준다. 따라서 보통 2개정도의 부품을 세이프티 와이어로 묶어둔다. 한 개의 부품이 풀리면, 다른 쪽 부품이 조여서 서로 잡아주지



항공기 부품이 서로 풀리지 않게 하기 위한 세이프티 와이어

때문이다. 세이프티 와이어를 체결하지 않고 항공기의 엔진을 가동하면, 항공기에 있는 볼트나 너트가 헐거워지거나 떨어져나갈 수 있다. 항공기 부품이 떨어지면 기체에 이상이 생기게 되고, 심지어 떨어져 나간 부품이 엔진에 들어가게 되면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아밍 와이어(Arming Wire)

- 출격 준비의 최종단계!

항공탄의 폭약은 신관(기폭장치)을 통해 작동된다. 항공탄이 비행기에서 사출되고, 신관 전방에 밴(Vane)이 바람에 의해 1,800rpm(초당 30회)로 회전하면 그 안의 톱니바퀴가 돌아가며 장전선이 폭약과 일직선으로 정렬되는 원리이다. 이 밴이 지상이나 기체 내에서 회전하지 않도록 잡아주는 장치가 아밍 와이어이다. 신관은 출격 전 최종 단계에 항공기에 부착된 항공탄에 조립하는데, 아밍 와이어도 이때 함께 설치한다. 즉, 아밍 와이어의 설치하는 항공기와 항공탄이 활주로로 나갈 준비를 모두 마쳤다는 뜻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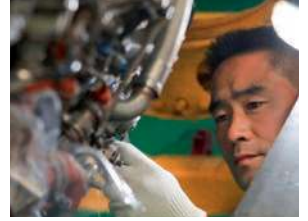
아밍 와이어는 폭약의 신관을 조정해주어 항공탄이 의도치 않게 폭발하는 것을 방지한다.

제10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기관중대 기관정비반 박기호 상사



저는 '97년 2월 임관 이후, 줄곧 F-4E 엔진만 정비했습니다. F-4E의 엔진에는 세이프티 와이어(Safety Wire)가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철사만 20년 넘게 만졌다고 볼 수 있죠. 세이프티 와이어는 전기계통, 연료, 오일, 에어계통 등 모든 부분에 쓰입니다. 항공기 엔진은 비행기의 심장입니다. 그렇다면 철사는 항공기의 핏줄이라고나 할까요. 눈에 보이지 않고 존재감이 작은 거 같지만, 핏줄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를 수행하듯 철사는 항공기의 안전한 임무수행을 위해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철사는 항공기의 핏줄이다.



제10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 부품정비대대 기관중대 기관정비반 최윤희 중사



세이프티 와이어는 항공기에 필수적인 물품입니다. 이게 없으면 비행 중에 항공기 부품이 떨어지거나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작은 문제가 엔진 폭발 같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철사를 대체할 것은 철사밖에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철사를 가지고 작업할 때는 주의사항이 많습니다. 잘린 철사의 작은 조각들이 엔진에 남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고, 제거 시엔 주위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그리고 철사의 절단면이 날카롭기 때문에, 손을 다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요. 또한 와이어는 재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철사를 대체할 것은 철사밖에 없다.



제10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 장비정비대대 탄약중대 탄약관리반 조형묵 상사



저는 전투기 사격에 필요한 항공 탄약을 조립·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항공 탄약에 사용하는 철사는 아밍 와이어(Arming Wire)라고 부릅니다. 폭탄 기폭장치의 고정에 쓰이지요. 항공 탄약은 탄이 지상에서 터지지 않도록 주 폭약을 둔감한 것으로 사용합니다. 이를 필요할 때 터지게 하는 보조 폭약이 신관이며, 신관이 지상과 기체 내에서 터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이 아밍 와이어입니다. 아밍 와이어는 단순한 철사가 아닌 '신뢰의 줄'이자 '생명의 줄'입니다. 저희는 생명과 직결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언제나 철저히 하고 안전하게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철사는 '신뢰의 줄'이자 '생명의 줄'이다.



제10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 장비정비대대 무장중대 기총정비반 김보혜 중사



저는 F-4E의 기총인 M16A1의 기총정비·지원 및 AGTS(조종사 사격 임무용 공중 표적장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총반은 항공기에 사용되는 나사들이 진동과 하중으로 인해 느슨해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 세이프티 와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총 주기검사를 할 때는 모든 부품을 분해하고 세척, 점검, 윤활, 재장착, 결합합니다. 결합할 때에는 모든 부품을 세이프티 와이어를 이용해 고정합니다. 철사는 대체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쿼터핀이라고 비슷하게 부품을 고정하는 부품이 있긴 하지만, 사용 용도가 세이프티 와이어에 비해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와이어를 사용할 곳에 쿼터핀을 억지로 사용하면 부품에 손상이 가해지고, 이상이 생겨 위험할 수 있습니다. 철사는 정비사의 안전 자존심입니다. 기본적인 절차이면서도 안전을 위해 반드시 탄탄하게 지켜야 합니다. AF

#철사는 정비사의 안전 자존심이다.



공군이 내놓은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월간 공군이 자신있게 소개하는 공군의 디자인!

공군만이 보여줄 수 있는 이미지를 다양한 물건으로 표현했습니다.

국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자 공군이 내놓은 다양한 아이템을 만나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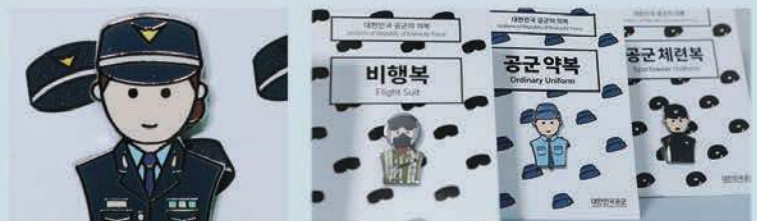
공군 의복 캐릭터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브랜드 부문 본상 수상

- 수첩
- 배지
- 마그넷
- 엽서

대한민국 공군의 힘은 공군을 움직이는 사람들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공군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의복들을 입습니다.

공군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입는 의복들로 캐릭터를 만들고 생활 곳곳에 스며들기 위한 굿즈들을 만들었습니다.



B/W 전투기

- 다이어리
- 젠가



대한민국 공군의 대표적인 전투기 F-15K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흑백 점묘화 스타일로 재해석해 디자인한 젠가와 다이어리입니다.



공무티

- 엽서
- 보드게임



세계적인 보드게임 달무티를 공군의 일러스트로 재해석했습니다. 간단한 규칙과 친근한 그림이 어우러져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하늘에 피어난 꽃들

- 에코백
- 책갈피 / 부채
- 다이어리

대한민국 공군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하늘을 지킵니다. 새벽녘과 해질녘에 그려진 전투기의 비행운은 마치 하늘에 피어난 꽃처럼 보입니다. 하늘에 피어난 꽃을 그려낸 에코백과 다이어리입니다.





공군의 마블

- 보드게임
- 트레블 팩
- 스티커

우주로 진출하는 대한민국 공군을 주사위보드게임에 담았습니다. 알록달록한 미래 우주를 누비고 최강의 항공우주군을 만들어보세요.



계급전쟁

- 보드게임



어두운 복도에서 마주친 낯선 사람
얼굴도 계급장도 보이지 않는다!
'먼저 경례를 할까? 말까?'
애매하고 긴장감 넘치는 상황을 카드게임으로 구현했습니다.

공.내.아. Q&A

Q. 공군이 내놓은 아이템이란 무엇인가요?

A. 국민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 공군이 직접 디자인하고 만든 다양한 기념품입니다. 공군이 진행하는 다양한 행사, 이벤트 등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Q. 공군이 내놓은 아이템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월간 공군 독자코너(공군인의 편지, 책 읽는 공군)에 참여하시거나, 독자엽서(마음의 소리)를 보내주세요. 공군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진행되는 이벤트에 응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들께 '공군이 내놓은 아이템'을 발송해드립니다. (단, 특정 기념품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재고 사정에 따라 상기 목록 외의 상품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Q. 공군이 내놓은 아이템을 구매할 수도 있나요?

A. 2019년 6월 기준으로 공군이 내놓은 아이템은 별도 구매가 불가능하며, 공군의 행사, 월간 공군 참여, SNS 이벤트 등을 통해서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추후 더 자유롭게 공군이 내놓은 아이템을 만나보실 수 있도록 방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페이스북 '대한민국 공군' 검색
- 인스타그램 'rokaf_official' 검색
- 유튜브 '대한민국 공군' 검색
- 블로그 'afplay.kr'

공군병 80기 입대 기념

8, 80

병 8기, 80기를 찾습니다!

공군병 8기, 80기 본인이시거나
가족 중에 공군병 8기, 80기가 있으신 분!
공군병 8기, 80기와 관련된
사진 자료 혹은 물건을 가지고 계신 분!

월간 공군 편집실로 연락주세요.
월간 공군 8월호의 주인공으로 모시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 042-552-6943

메일 : afzine@korea.kr

접수 기한

'19. 6. 24.(월)까지

취재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기념품을 제공해드리며,
최종 취재대상은 내부검토를 통해 선정합니다.



군인공제회와 함께

미리 준비하는 여름 휴가

여름휴가를 준비중이라면 군인공제회가 운영하는 '회원콘도'와 '제휴 숙박시설'을 잘 활용해보자.

군인공제회 회원(퇴직회원의 경우, 목돈수탁가입자 또는 분할급여가입자)이라면 누구나 리조트 회원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제휴복지시설의 경우 20~80%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리조트 회원권(3천~4천만원 상당)을 사야만 누릴 수 있는 프리미엄 혜택을 올 여름 휴가에서 실속 있게 누리보자.

회원콘도 / 제휴 복지시설 현황

회원콘도(할인율:회원가)

- 한화리조트(8개 지역, 40객실)
평창, 설악, 해운대, 대전, 경주, 백암온천, 양평, 지리산
- 대명리조트(14개 지역, 75객실)
홍천(비발디파크, 소노펠리체), 설악(델피노), 양양(솔비치), 삼척(솔비치), 천안, 단양, 청송, 경주, 변산, 거제(마리나), 제주함덕, 제주(샤인빌), 고양(엠블호텔), 여수(엠블호텔)

제휴복지시설(콘도/호텔)

- 콘도/호텔 총 109개 시설
롯데리조트, 캔싱턴호텔, 더케이호텔 등
- 문화레저시설 총 28개 시설
원마운트파크, 짚라인, 정동극장 박물관은 살아있다 등

회원콘도 이용 꿀TIP

- ☑ 비수기를 이용하자!
- ☑ 직계가족도 사용가능!
- ☑ 주중에 여행을 떠나자!
- ☑ 잔여객실도 다시 보자!

잔여객실은 선착순으로 배정
예약가능기간은 꼼꼼하게 확인하자.

※ 회원콘도의 경우
[예약신청] 투숙일 30~16일
[예약확정] 투숙일 15일 전

신청 방법

군인공제회 복지포털 [로그인]
welfare.mmaa.or.kr

회원콘도 / 제휴복지 메뉴 [클릭]

회원콘도 홈페이지 예약 제휴복지시설 전화 예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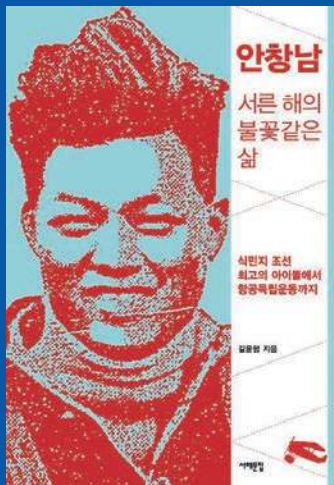


1·1·1 독서

1·1·1 독서운동은 1인 1개월 1권 이상 독서하기를 목표로 공군에서 진행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월간 「공군」이 추천합니다!

지휘관 추천도서



2019. 4.

[인물] 항공독립운동가 된 식민 조선의 최고 아이돌

〈안창남 서른 해의 불꽃같은 삶〉은 “안창남은 서울 사람이다”라는 문구를 시작으로 그의 삶을 추적한다. 1901년에 태어난 안창남은 학창 시절 일본·미국인 비행사의 비행을 목격한 뒤 비행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일본으로 떠난다. ‘천재 비행사’라는 명성을 쌓으며 1922년 두 차례에 걸쳐 고국 방문 비행에 성공한 것도 잠시, 그는 이듬해 간토대지진과 뒤이은 조선인 학살을 목격한 뒤 독립운동에 헌신하기로 결심한다. 안창남은 중국으로 떠나 독립군 건설을 위한 군자금 모집을 시도하는 등 독립운동을 이어가다 1930년 30살의 나이에 불의의 비행기 사고로 목숨을 잃는다. 안창남을 면밀히 다룬 관련 자료도 적을뿐더러, 당시의 언론 보도가 대부분 풍문에 근거한 상황에서 저자는 다양한 참고문헌을 활용해 그가 살았던 시대상을 묘사한다. 책 곳곳에서 길라잡이가 되어주는 당시 자료들은 마치 안창남의 팬이었던 조선인이 되어 당대를 여행하는 것 같은 재미를 더한다.

안창남 서른 해의 불꽃같은 삶/길윤형/서해문집/19.04/344p/17,000

일반장병 추천도서



2019. 4.

[역사] 독립운동의 성지... 수감자 절반이 20대 청년이었다

‘서대문형무소’는 한국 독립운동의 ‘성지’다. 유관순·안창호·한용운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일제강점기에 이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고 목숨을 잃었다. 지금도 그 성지를 지키는 보호자이자 연구하는 학자가 박경목(48)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장이다. 이 책은 2004년부터 역사관장으로 재직하는 저자가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의 감옥인 서대문형무소를 주제로 쓴 역사서이다. 독립운동 성지지기의 현장 보고서인 셈이다. 당시 형무소의 도면과 사진, 수감자들의 수형기록카드 등을 통해 입체적으로 역사적 사실을 풀어내고 있다는 점이 이 책의 미덕이다. 특히 영화나 드라마에서 스치듯 지나가는 수감자들의 일상을 미시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대목이 돋보인다. 일제강점 말기 광주형무소의 통계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저자는 형무소 한 곳에서 매년 60여 명이 병사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터뷰에서 그는 ‘뽕족한 끝’이라는 뜻을 지닌 ‘첨단(尖端)’이라는 한자어를 통해 서대문형무소의 역사적 의미를 다음과 같이 풀이했다.

“감옥은 한국민들을 아프게 찌르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식민 지배의 가장 날카로운 끝과도 같았다.” (작가의 말)

식민지 근대 감옥 서대문형무소/박경목/일빛/19.04/492p/28,000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전을 대비한


제2회 공군-국민대 UAS 발전 세미나

2019년 4월 25일(목)



공군-국민대 UAS 발전 세미나

항공우주전투발전단은 4월 25일(목) 공군회관에서 「제2회 공군-국민대 UAS 발전 세미나」를 주최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미래전을 대비한 UAS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는 국내 군·산·학·연 및 이탈리아, 베트남 등 해외 군·기관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모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UAS는 미래전장에서 우위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핵심 전력이기에 우리 안보환경과 작전개념에 부합하는 명확한 UAS 운영개념 확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고, “이번 세미나가 각계 전문가들의 지식과 지혜를 집약해 UAS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군지휘관회의 개최

참모총장은 5월 13일(월) 공군본부에서 참모총장 지휘지침 전파 및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강조를 위한 공군 지휘관회의를 주관했습니다. 제37대 공군참모총장 지휘지침은 ‘국민과 함께하는 최강의 정예공군 양성’을 목표로 확고한 전방위 군사대비태세 유지, 군사전문성을 갖춘 정예전사 양성, 강하고 스마트한 항공우주력 건설, 투명하고 효율적인 군 운영체계 확립, 기강이 바로서고 신바람 나는 병영문화 창달, 국민과 함께하는 믿음직한 공군상 구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모총장은 훈시를 통해 “공군 전 장병과 군무원은 능동적이고 흔들림 없는 주 임무 수행을 통해 국민이 믿고 신뢰하는 강한 공군으로 거듭나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대비태세 현장지도

참모총장은 5월 13일(월) 제38전투비행전대를 방문하여 항공작전 운영현장을 점검하고 임무완수에 진력하고 있는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참모총장은 한반도 남서부 영공방위 핵심임무를 수행하는 38전대와, 공동 주둔하고 있는 美 제8전투비행단의 항공작전 현황을 보고 받은 뒤 비상대기실 등 임무 현장을 순시했습니다.





**유도탄사,
방공유도탄포대 종합전술훈련**

방공유도탄사령부 예하 안성포대는 5월 8일(수) '19년 여주 종합전술훈련의 일환으로 방공장비를 여주종합전술훈련대에 전개하며 체계적인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사령부,
향과교 개교 50주년 기념행사**

교육사령부는 5월 4일(토)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 개교 50주년을 맞아 사령부 연병장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8전비,
둔둔초등학교 대상 직업소개 교육**

제8전투비행단은 5월 7일(화) 어린이날을 맞아 둔둔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직업소개 교육 시간을 가졌습니다.



**10전비, 스페이스 챌린지
(Space Challenge) 2019 예선대회**

제10전투비행단은 5월 11일(토) 제41회 공군참모총장배 스페이스 챌린지 경인지역 예선대회를 실시했습니다.



**11전비,
9만 시간 무사고비행기록 달성**

제11전투비행단 110전투비행대대는 5월 8일(수) 9만 시간 무사고비행기록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기록은 1992년 12월 10일부터 올해 5월 8일까지 장장 26년 5개월에 걸쳐 이룩했습니다.



**16전비,
야간 활주로 피해복구 훈련**

제16전투비행단은 5월 13일(월) 시설대대 전 장병 및 군무원들이 피해복구 훈련장에서 야간 활주로 피해 복구 전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AF

공군인의 편지

내가 없었다면

From. 7전대 기지대대 헌병중대
일병 유일하



To. 동기

날이 쿡쿡해지고 있다. 여름이 오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지. 헌병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둘은 더 그러할 거야. 기지 순찰을 돌다 보면 등에 땀이 쉽게 맺히는 요즘이네. 전투복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체취를 맡으면 가장 뜨거웠던 작년 9월이 생각나.

9월 17일, 우리는 병 792기로 군 생활을 시작했다. 나는 또래보다 늦게 군에 들어왔지만 빠른 00년생인 너는 스물이 된 그해에 입대를 했다. 코드가 맞았던 우리는 나이를 떠나 금세 친해질 수 있었어. 자습시간에 몰래 유튜버들의 반응을 따라하고, 빨래하다가 이적의 '빨래'를 같이 열창하고. 집에서 막내라 동생이 없는 나는 네가 친동생같이 느껴졌어.

달이 바뀌었고 훈련단의 꽃인 화생방이 기다리고 있었지. 입대 전 인생 최고 몸무게를 찍은 나는 방독면만 차면 숨이 차서 가만히 서있기조차 버거워했어. 연습 때도 이러는데 실습에서는 어쩌나 고심하던 내게 너는 걱정하지 말라며 옆에서도 도와주겠다고 너스레를 떨었지. 드디어 실전 훈련 날, 화생방 훈련장으로 가는 그 유명한 언덕은 평소보다 더 가파르게 다가왔어. 10월임에도 더운 날씨에 땀이 멈추질 않았었지. 1중대 1소대였던 우리는 1순위로 가스체험을 해야 했어. 긴장을 잔뜩 하고 가스실 안쪽으로 한 발을 디뎠고 거기서부터 내 '멘붕'은 시작됐었지. 맨땅에 발을 동동 구르며 괴로워했던 걸 떠올리면 민망해서 웃음이 나. 몸까지 비틀며 힘겨워하는 나를 보자 곁에 있던 너는 내 손을 훈련이 끝날 때까지 꼭 붙잡아줬어. 가스 때문에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네가 옆에 있다는 사실 하나로 나는 많이 안심할 수 있었어. 간신히 정신만 붙들고 있던 터라 정화통도 못 끼고 있었는데 네 것을 후닥 조립하고선 내 정화통도 얼른 조립해주었지. 버틸 수 있을까 싶었는데 또 어떻게 견뎌서 훈련이 종료됐다는 방송이 들리더라. 방독면을 벗고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마주보며 웃었던 장면은 꽤 오래 기억될 거 같아.

CS탄과 함께 땀에 젖어있던 전투복 냄새가 여전히 코끝에 맴도는 듯해. 남들은 할 만했다는 화생방이 내겐 극악의 난이도였고 네가 없었다면 그 어려운 걸 해내지 못 했을 거야. 정문 초소에서 추워하던 때가 언제였냐는 듯, 무더워지는 대지를 느끼며 뜨거웠던 작년 기온단을 떠올려봐. 어린 나이임에도 의젓하게 주변을 챙길 줄 알던 승현아. 쉽지만은 않던 6주간의 훈련병 시절을 너와 함께 보낼 수 있었음에 감사해. 이제는 각자의 위치에서 나름의 성장을 통해 멋진 어른의 모습으로 건강히 전역하자. 휴가 맞춰서 소주 한 잔 하자.

'공군인의 편지'는 월간 『공군』을 편지 수신자에게 '공군이 내놓은 아이템'과 함께 발송해드리는 코너입니다.

가족, 애인, 친구, 동료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아래 양식에 맞춰 보내주세요.

- 바탕 / 10pt / 줄간격 180% / 공백 포함 1,250자 내외 / 수신인 성명·주소·연락처 기재

- 접수방법 : E-mail 전송 (공군지담당 대위 이요셉, 인트라넷 : wittyyo@af.mil 인터넷 : afzine@korea.kr)

* 반드시 제목에 말머리(편지) 명시 (예 : [편지] 00버 00대대 상병 김공군)



사랑합니다

From. 제5공중기동비행단 정보처
일병 백성진



To. 부모님

제가 부모님께 처음 편지를 써드린 게 언제였건가요. 유치원에 다니던 시절, 어버이날을 맞아 카네이션 모양을 만들 겠다며 색종이를 잘라 뒷면에 부모님을 향한 ‘엄마아빠 사랑해요’라 적은 편지를 써드린 기억이 납니다. 아버지께서는 제 편지를 읽으시고는 장난스러움과 통명스러움을 담아 “이번 편지는 ‘엄마아빠’라고 했으니 다음 번 편지는 ‘아빠엄마’라고 써줄 거지?” 하며 말씀하셨던 그 장면도 여전히 떠오릅니다. 어머니께서는 저의 투박한 카네이션 편지를 보며 기뻐하시고는 냉장고에 붙여두어 제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도 떼지 않으셨지요. ‘사랑합니다’라는 말, 아마 제가 태어나서 부모님께 가장 적게 해드린 말일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편지 이후로 다섯 번은 말했을까요.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않아도 내 마음을 잘 알아주시겠거니 하며 회피하던 말입니다. 머리가 커지고 키가 자라며, 혼자만의 이야기가 생기고 과묵해지면서, 표현에 서툰 사람이라던 막내아들은 본인의 투정을 표현하는 것은 부끄럽게도 참 잘했던 기억이 나 후회가 됩니다.

어릴 적 삼촌께 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삼촌이 어린 시절 1주일 치 용돈을 다 쓴 후에도 과자가 먹고 싶어 외상으로 먹어야지 하며 슈퍼마켓에 갔다고 합니다. 슈퍼 미담이문에는 ‘오늘은 외상 불가, 내일은 외상 가능’이라 써진 종이가 붙어있었고, 아쉬웠지만 마침 친구들이 놀자 하였으므로 과자는 내일 먹어야지 하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다시 슈퍼에 갔지만 같은 문구가 붙어 있었고, 그 다음 날도였습니다. 결국 한 주가 지나 새로 받은 용돈으로 과자를 사며 주인아주머니께 물었습니다. 왜 문구를 떼지 않으시는지 하고 말입니다. 주인 목포떡께서는 막상 다음날이 되면 누구네 외상을 장부에 기록해두는 것이 귀찮아 오늘까지만 받아주시 말아야지 하게 되더라고 하셨다 합니다.

결국, 내일을 향한 마음을 먹기보다 오늘 나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어버이날에만 늘 편지 속의, 끝없을 것만 같은 사랑의 글자 뒤에 숨은 것은 부모님을 향한 죄송함과 부끄러움을 숨기고자 한 저의 도망이었음을 이제 압니다. 오늘은 전화를 마치며, 부모님의 ‘사랑한다. 우리 보배’란 말씀에 ‘저도요’를 덧붙이기보다, ‘저도 사랑합니다.’라고 답해보았습니다. 이 편지가 부모님께 닿을 수 있을 때 즈음엔 제가 부모님께 목소리로 전해드린 사랑의 자음과 모음이 수십 개가 될 수 있으면 하고 다짐해봅니다. 늘 사랑합니다.

네가 그랬듯 나도 네게 선물이 되어줄게

From. 제18전투비행단 정보처
일병 이경석



To. 여자친구

매일 휴대전화를 통해 연락하다 이렇게 어딘가에 올라갈 편지를 쓰니 괜히 더 떨리고 어색하다. 하지만 6월엔 네 생일이 있고 세 번째로 함께 맞는 너의 생일인 만큼 특별하게 축하하고 싶어 이렇게 글을 남겨봐. 공군은 너에게도 나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되어줬잖아? 2017년 내 생일날 널 처음 만나고 연락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항상 너 내 옆에 있어줬어. 그러다 한 달이 지나고, 일 년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 내가 군대를 가게 됐지. 주변 사람들은 내가 공군에 입대한다 했을 때 하나같이 반대했었어. 휴가와 상관없이 절대적인 전역일이 타 군에 비해 길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복무기간이 조금 더 길어도 너와 자주 만날 수 있고, 또 내가 노력한 만큼 자대 위치를 정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한 치의 고민도 없이 공군을 선택했고 지난 12월 훈련소로 떠났지. 입소하는 날 새벽 4시에 일어나 날 보겠다고 함께 와준 너를 보며 마음도 많

이 아프고 슬펐지만 한편으론 정말 열심히 훈련소 생활해서 원하는 자대 가야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어. 그 이후로 어느덧 5개월이 지났네. 노력한 만큼 결과도 나와 줘서 행복했지만 난 한때 혹여나 기다리는데 지치진 않을까, 괴롭진 않을까 우려했었어. 그런 나에게 너는 보란 듯이 씩씩하게 날 기다려줬고 또 예전과 다를 것 없이 날 사랑해주고 있어. 그런 네가 옆에 있어서일까 나 역시 입대 전엔 두렵고 막막하기만 했던 군 생활을 이제 즐길 줄도 알고 또 열심히 생활하면 그만한 보상을 받아 너를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의욕이 샘솟곤 해. 아무리 자주 보러 간다 해도 내가 군인 신분이라 외롭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할 텐데, 넌 속삭인 마음을 털어내기보단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며 내가 열심히 복무해줘서 맘 편히 지낼 수 있어 고맙다고 나한테 말해주곤 하잖아. 이런 네가 있어서 내가 더 군생활에 집중하고 의무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 배고플 때 먹으라고 보내준 과자들보다, 감기 걸릴까봐 보내준 마스크보다 네 자체가 내 여자친구가 되어준 게 내겐 가장 큰 선물이야. 나 역시 네게 큰 선물이 되어 돌아갈게. 더 듬직하고 멋진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서 몸 건강히 전역할게. 항상 고맙고 소중한 내 여자친구 헤린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았고 우리 더 오래오래 서로 걸을 지켜주자. 내가 많이 아끼고 사랑해! AF

책 읽는 공군

장병참여 독후감

개인주의자 선언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우리는 집단 안에서 살아갑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국가, 지역과 같은 집단에 소속되고, 집단 속에서 죽게 됩니다. 인간은 타인과 교류하여야 생존할 수 있고, 소속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안정감이 드는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집단' 속에서 멸사봉공(滅私奉公)을 최고의 가치라 배우고, 집단의 눈치를 보며 '튀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과연 행복한 걸까요? 문유석의 『개인주의자 선언』은 이런 집단주의 문화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합리적 개인주의자의 필요성을 역설합니다.

우리는 학교, 직업, 외모, 사는 동네, 차종 등 모든 것이 서열화되어 있는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문화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들 다 하는 대로' 갖추고 살아야 행복한 것이고, '남들보다' 뛰어나고 출세해야 인정받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남들과 다르게 비춰지는 것에 대한 공포는 우리에게 행복을 앗아갔습니다. 타인과의 비교에 대한 집착이 무한경쟁을 낳았고, 이는 우리에게 만성적인 긴장과 피로를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 개인주의자'는 남들과 자신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차이에 대한 용인은 집단으로부터 기인하는 기형적 행복감을 없애고, 강박적 경쟁으로 인한 피로와 긴장을 완화합니다. 남들과 나의 차이에 대한 톨레랑스는 보다 많은 개인이 주눅들지 않고 행복할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또한 '합리적 개인주의자'는 공동체에 대한 배려, 사회적 연대와 공존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존중받기 위해서는 타인의 자유 또한 존중받아야 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남들과 타협할 줄 알며,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

꺼이 타인과 연대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던 개인주의는 르네상스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류문명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룬 엔진인 것입니다.

남들 눈에 비치는 내 모습에 집착하고, 집단 내에서의 평가에 개인의 자존감이 좌우되는 사회 분위기 아래서 성형 중독, 사교육 열풍, 학력 위조 등의 강박적 경쟁투쟁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더 불행한 이유는 결국 우리 스스로 자승자박함에 있는 것입니다. 뱃살이 몇 겹씩 접혀도 당당하게 비키니를 입고 즐기는 문화와, 충분히 날씬한데도 불구하고 밥을 굶어가며 지방 흡입을 하는 문화 중 어떤 것이 개인의 행복에 유리할까요. 작가는 결국 이 책을 통해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어떤 삶의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단은 개인의 행복을 위한 도구이지 개인의 행복의 잣대가 아닙니다. 집단 내에서의 서열, 타인과의 비교가 행복의 기준인 사회에서는 개인은 분수를 지킬 줄 아는 노예가 되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오롯이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닌,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아왔던 것은 아닐까요? 남들과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당당한 개인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겠습니다.



글
3여단 177세대 593정비대
상병 조재형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석 지음
문학동네 펴냄

심리학, 자존감을 부탁해

- 나답게 살기 위한 연습

흔히 사람들은 자기계발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기계발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사람의 심리적인, 정신적인 마음가짐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자존감'입니다. 사회에서 각종 방송들, 서적들, 강연들을 둘러보면 이 자존감을 길러야 한다는 말을 참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자존감을 높여야 할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존감은 '자아'를 '존중'하는 '감정'입니다. 글자 그대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마음이 곧 자존감인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고 이 책에서는 말합니다. 사실 낮은 자존감은 그 자체로서 어떤 영향을 주기보단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 생겨나는 불안, 수치심,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의심이란 감정으로 인해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회의, 자기불안 등에 빠지게 만들며 악화될수록 사회적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약점을 너무 크게 받아들이거나 다른 사람이 알아채지 못한 자신의 일면에 대해 비관하고 항상 완벽하고자 하며 실수를 과도하게 조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이러한 면이 있다면 자존감이 낮은 것으로부터 비롯된 감정들로 자신이 자신을 해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선 모든 사람들이 내면에 아이를 품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내면의 아이는 자신이 어렸을 적에 받았던 상처나 고통들을 안고 있는 나의 미성숙한 자아입니다. 이 아이가 받은 고통이 클수록, 그리고 그 고통을 제대로 이겨내지 못할수록 아이

는 불안해하고 걱정 많은 외면의 어른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심리학의 도움을 빌려 불안에서 벗어나고 자존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자존감의 치유를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행동을 취하는 주체가 되기, 자기감정 다루는 법을 배우기, 이렇게 네 개의 단계로서 자기인식의 변화를 꾀하고 또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타인들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이 방법들을 통해 우리의 내면의 아이를 달래주는 법을 배우으로써 자신은 있는 그대로 좋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도움을 받았던 이 책에서 소개하는 간단한 방법들을 통해 장병들이 자신을 인식하는 법을 바꾸어서 힘든 군 생활을 이겨낼 수 있는 강한 마음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나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아는 멋진 공군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F**



글
공본직할 기상단 제400기상파견대
이병 정민혁

심리학, 자존감을 부탁해

슈테파티 슈탈 지음
갈매나무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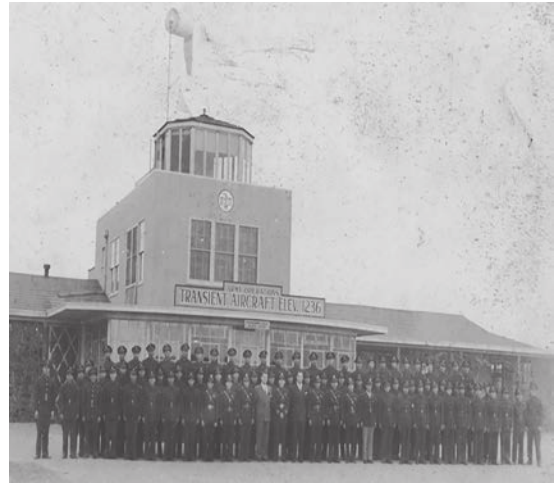
중화민국 공군총력록 속 한국인 구양명, 전상국 비행사

‘중화민국 공군총력록¹⁾’에 수록된 한국인은 현재까지 총 4명이다. 이 중 서국일(서알보) 장군과 김은제 비행사는 이전에 다루었고, 오늘은 구양명(김원영)과 전상국 비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1) 중화민국이 건국된 이후 중국 각지의 군벌을 정리하던 북벌시기~중일전쟁 기간까지 공군 소속으로 순직 또는 전사한 인물들의 공적을 사진과 함께 기록한 역사서. 공군총력록 속 한국인은 전상국, 구양명(김원영) 2명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에 서국일(서알보)과 김은제 등 2명의 한국인을 추가로 확인함.



중화민국 공군총렬록에 기록된 구양명(김원영) 비행사



구양명(김원영) 비행사 졸업사진

구양명(김원영) 비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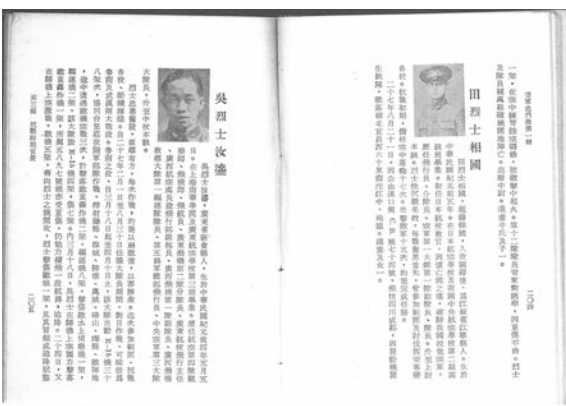
공군총렬록에 기록된 구양명(김원영) 비행사의 국적은 중국이다. 상하이 출신으로 기록된 것이다. 당시 중국에서 활동하던 독립지사들은 일본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거나 중국 국적을 얻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공군총렬록에 전상국 비행사만이 한국 국적으로 기록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구양명(김원영) 비행사의 부친은 백범일지에도 등장하는 김보연 선생이다. 김보연 선생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정원 의원, 경무국원, 후원회 준비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에 주춧돌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들 역시 그런 아버지를 따라 독립운동에 투신한다.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韓國光復陣線靑年工作隊)²⁾ 대원으로 활동하다가 공군군관학교에 입교했다.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 활동을 할 당시 동북 항일유격대를 배경으로 한 연극 '전선의 밤' 주연 배우를 맡기도 했다. 그의 사진을 보면 이목구비가 뚜렷한 것이 한눈에 봐도 주연 배우 감이 있을 것이다. 구양명(김원영) 선생의 출생연도와 공군군관학교 출신 기수는 공식 자료마다 달라서 혼란스럽다.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공훈록에는 1919년 출생에 공군군관학교 15기로 표기되어 있지만 중화민국 공군총렬록에는 1922년 출생에 공군군관학교 16기로 기록되어 있다. 본 원고에서는 공군총렬록 기록

을 따르기로 한다. 구양명(김원영) 선생의 사례처럼 국내의 기록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아 그저 안타까운 마음이다. 구양명(김원영) 비행사는 공군군관학교를 졸업한 후 인도에서 비행훈련을 받았다. 1945년 1월 중미공군혼합연대(中美空軍混成聯隊) 제5대대 29중대에 소위3급 비행원으로 보직된 후 악양(岳陽)·형양(衡陽) 등지에서 일본군 운수부대를 소탕하는 전과를 올렸다. 한 번은 대공포에 기체가 추락해 일본군에 잡힐 뻔 했으나 현지 주민들의 도움으로 우여곡절 끝에 복귀를 하는 등 하루하루 생사를 오가는 갈림길에 있었다. 구양명(김원영) 비행사가 주둔한 지장기지는 항공모함처럼 이착륙이 까다롭고 위험했다. 활주로가 산중턱에 위치한 탓이다. 이륙과 동시에 기수를 높이 올리지 못하면 실속 상태로 추락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구양명(김원영) 비행사도 1945년 3월 일본군 공격을 위해 이륙 중 이런 이유로 순직하게 된다. 그의 나이 꽃다운 20대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적을 인정해 2001년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현재 난징항공열사공묘에 전상국 비행사와 함께 모셔져 있다.

2) 중국군 병사들을 위로하는 공연을 통해 항일전선을 고취시키고자 했다.



전상국 비행사가 교관으로 활동한 중앙항공학교 전경



중화민국 공군총령록 속 전상국 비행사. 한국 국적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반갑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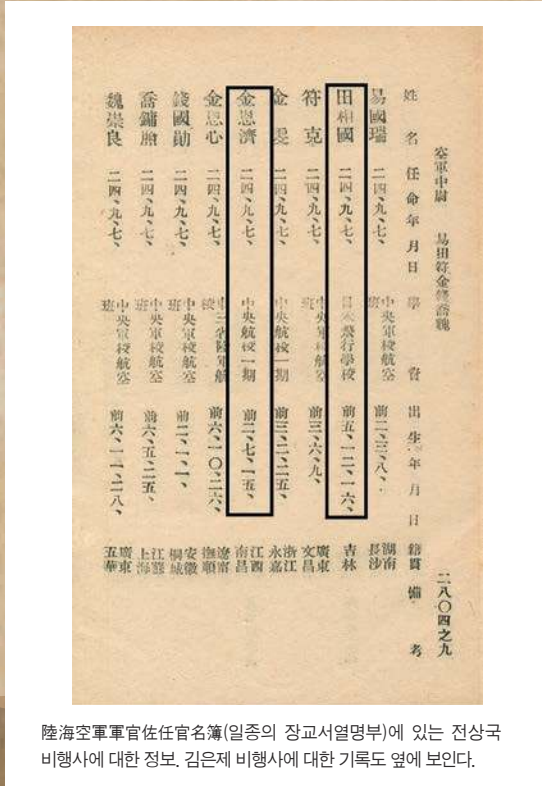
전상국을 공군중위에 임명한다는 국민정부 공보. 전상국 비행사 외에도 공군창설 7인 중 한명인 이영무, 해공 신익희 선생의 사위 김은제 등이 보인다.

전상국 비행사

공군총령록 속 유일한 한국 국적 전상국 비행사. 일본제일비행학교를 졸업한 후 2등조종사 자격을 획득했고 자신이 졸업한 비행학교의 교관으로 일했다. 당연히 그에게는 안정된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기꺼이 포기했다. 망국의 한이 컸기 때문이다. 중국으로 망명한 전상국 비행사는 중앙항공학교(현 대만 공군군관학교) 교관으로 비행사 양성에 힘을 쏟았고 1934년 중앙항공학교 고급반을 2기로 졸업한 후 비행원과 분대장을 거쳐 공군 제1대대 제1대 부대장(副隊長)과 대장(隊長)을 지냈다. 최종계급은 상위. '전투 때마다 용감하게 앞장서서 싸웠다(每戰~勇當先)'라는 공군총령록의 기록은 그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잘 알려준다. 석방번(石邦藩)과의 인연도 재미있다. 석방번은 중국 공군 최초로 일본기를 격추한 파일럿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석방번이 1932년 2월 항저우 요격전에서 부상당했을 때 위험을 무릅쓰고 지혈을 해준 이가 바로 전상국 비행사다. 항일투쟁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중국으로 온 그가 일본기를 격추한 파일럿의 목숨을 살렸다. 너무나 절묘한 인연이다. 중일전쟁 기간 중 일본군 폭격임무 15회, 수송임무 17회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전상국 비행사는 1938년 8월 21일 한커우에서 사천 성도로 공무차 비행하다가 엔진 고장으로 후베이성 의창 서쪽 60리 남타강에 추락·순직하였다. 그가 순직할 당시 외동딸의 나이는 고작 2살이었다. 전상국 비행사의 유족들의 이후 행방은 알 수 없었으나,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이 1995년 난징항공열사기념비 제막식에 참석했다가 전상국 비행사의 사연을 접한 후 10년 동안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일본에 거주중인 유가족들과 연락이 닿았다. 김신 장군의 노력 덕분에 전상국 비행사의 외동딸 전해경 여사가 2005년 10월에 난징항일항공열사공묘를 방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두 살배기 외동딸은 60대 중반 노인이 되었다. 60년 넘는 세월 동안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을까?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 남편, 할아버지, 누군가의 어머니, 부인, 할머니들의 희생과 그 희생으로 힘들어한 가족들 덕분에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감사했으면 좋겠다. 그동안 지피지사 공군인물을 사랑해주신 독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AF

구양명(김원영) 비행사 약력

- 1919년(공군총력록에는 1922년)~1945년 3월 24일
- 1935년 2월 : 조선인 학생훈련소 입소(남경)
8월 : 혁명동지회 참가
- 1939년 2월 : 한국광복진선청년공작대 활동
※ 동북 항일유격대 배경 '전선의 밤' 연극
주연 배우
- 1944년 2월 : 공군군관학교 제16기(공명) 졸업/
인도행(비행훈련)
- 1945년 1월 : 상해 귀국
※ 중미공군연합연대 5대대 제29중대
소위(3급 비행원)/지강공군기지
2월 : 악양, 형야 등지에서 일본군 보급부대 소탕
3월 : 출격 중 비행사고로 순직
- 2001년 :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



전상국 비행사 약력

- 1907년 12월 2일 : 황해도 신천군 출생
- 1927년 5월 : 일본제일비행학교 입학, 졸업 후
이등조종사자격 취득 및
제일비행학교 교관
- 중국 망명, 중앙항공학교(현 대만 공군군관학교) 교관
- 1931년 : 중국공군 입대
- 1932년 2월 : 항저우 요격전에서 부상당한 항공서
제2대대장 석방반 지혈
※ 석방반 : 중국 공군 최초 일본기 격추 파일럿
- 1934년 : 중앙항공학교 2기 고급반 졸업
- 1935년 9월 : 공군중위 임관
- 1936년 : 조선민족혁명단 가입
공군 1대대 제1대 부(副)대장
- 1937년 9월 : 공군상위 진급
※ 중일전쟁 기간 중 일본군 폭격임무 15회,
수송임무 17회
- 1938년 8월 21일 : 비행기 엔진고장으로 순국(만 30세)
※ 난징항공열사공묘에 모셔져 있음
-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



우주의 이해



UNDERSTANDING THE SPACE

인공위성 - 3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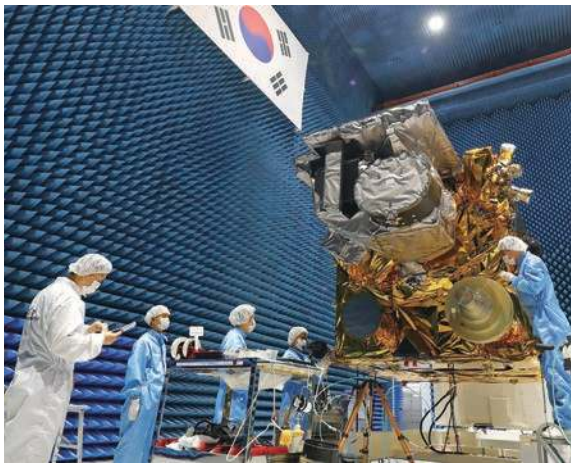
대한민국의 인공위성

1992년, 실험용 과학위성 '우리별 1호'를 발사하며 인공위성 보유국이 된 우리나라는 이듬해 자체기술로 2호를 개발하여 발사했다. 이후에도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끝에 국내 독자기술로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과 정지궤도복합위성(천리안)을 성공적으로 발사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대한민국의 인공위성에 대해 알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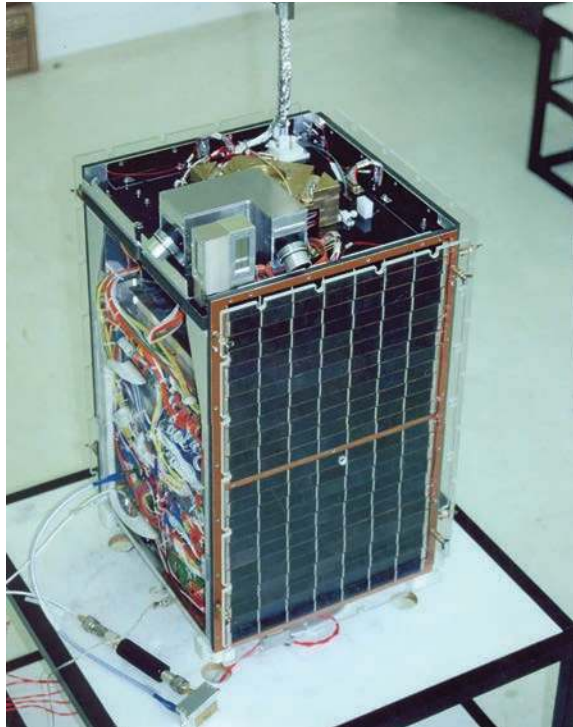
최초의 위성개발, 우리별 1호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는 1992년 8월 11일 발사된 과학위성이다. 당시 한국과학기술원과 영국의 서리대학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영국에서 발사되었다. 우리별 위성을 만들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인공위성을 개발할 기술이 전무하여 영국의 도움을 받았는데, 우리별 1호 개발 프로젝트 후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귀국하여 본격적인 위성개발을 시작하여 우리별 2호, 3호를 제작하였다.

우리별 위성개발 이후 우리나라는 위성개발 기술을 계속 축적하였고, 1999년 다목적실용위성인 아리랑 1호를 발사하였다. 이후 아리랑 3, 3A, 5호와 정지궤도복합위성 천리안 위성, 과학기술위성을 성공적으로 쏘아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다. 현재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아리랑 6, 7호와 천리안 2B를 발사할 계획이며, 대한민국 국가위성의 자세한 현황은 다음 쪽에서 살펴보자.



<발사 전 점검 중인 천리안 2A호>, 출처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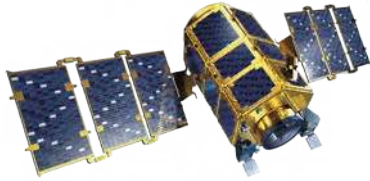
<우리별 1호 위성>, 출처 : SaTReC 인공위성연구소





현재 운용 중인 대한민국 국가위성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궤도를 돌며 우리 실생활에 도움을 주며 임무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국가위성들의 현황이다. 다목적실용 위성 2호, 5호와 과학기술위성 3호는 공식 임무가 종료되었지만, 수명이 남아있어 추가 임무 중이며, 정지궤도복합위성 2B로는 올해 말 발사 예정이다. **AF**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2호(2006년)

- 1m급 고해상도 다중대역카메라 탑재
- 고도 : 685km(저궤도)
- 임무 : 지구정밀관측
- * 공식임무 종료 후 추가 임무 중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3A호(2015년)

- 50cm급 광학 및 최초 적외선 센서 탑재
- 고도 : 528km(저궤도)
- 임무 : 지구정밀관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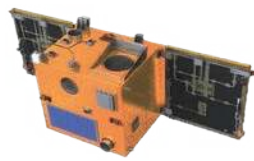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3호(2012년)

- 국내 최초 70cm급 전자광학카메라 탑재
- 고도 : 685km(저궤도)
- 임무 : 지구정밀관측



다목적실용위성(아리랑) 5호(2013년)

- 국내 최초 전천후 영상레이더(SAR) 탑재
- 고도 : 550km(저궤도)
- 임무 : 전천후 지구관측
- * 공식임무 종료 후 추가 임무 중



과학기술 3호(2013년)

- 다목적 적외선 영상시스템 및 소형 영상분광기가 탑재된 과학기술용 위성
- 고도 : 600km(저궤도)
- 임무 : 과학연구, 대기관측 등
- * 공식임무 종료 후 추가 임무 중



정지궤도복합위성(천리안) 1-2A호

- 정지궤도에 위치하여 한반도 기상과 해양을 관측하는 복합위성.
- 2019년 2B호 발사예정
- 고도 : 35,786km(정지궤도)
- 임무 : 해양·기상·우주기상 관측



통신위성(무궁화) 5, 5A, 6, 7호

- 위성방송·통신용 정지궤도위성(KTSat 운영)
- 고도 : 35,786km(정지궤도)
- 임무 : 위성방송·통신 및 중계



차세대소형위성 1호(2018년)

- 인공위성의 소형화·모듈화·표준화를 모두 갖춘 우주 과학임무용 소형위성
- 고도 : 600km(저궤도)
- 임무 : 과학연구, 우주 핵심기술 검증 등

[사진 및 내용출처 : 항공우주연구원, KT sat, SaTReC 인공위성연구소]



「우주의 이해(핵심주제 70선)」 책자 발간 안내

공군 장병 여러분의 우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최신 우주지식을 전하기 위해 「우주의 이해(핵심주제 70선)」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을 인터넷 <우주소식>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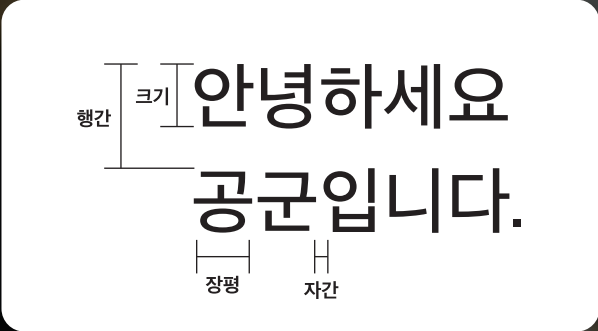
* 본 책자는 군내에서만 확인 가능합니다.





생활 타이포그래피

행간과 자간, 장평



글자들이 모여 단락을 형성하게 되면, '행과 행 사이 간격인 행간과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인 자간, '글자의 폭인 장평이 중요해 집니다. 행간과 자간, 장평에 따라 단락의 밀도와 인상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행간

행간은 행과 행 사이의 간격입니다. 행간 값은 보통 글자 크기의 1.2 배에서 2배를 줍니다. 행간 값을 글자 크기의 2배를 주는 것을 더블 스페이스(Double Space)라 부르는데, 책이나 잡지의 본문처럼 줄글이 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행간 값을 더블 스페이스로 주어야 읽기가 편합니다. 먼의 대부분이 글자로 가득하면 답답하지만 행의 높기와 여백의 높이가 같으면 행과 행 사이의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본 글 본문의 행간 값은 더블 스페이스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단락의 폭이 좁거나 행의 수가 적은 경우, 더블 스페이스를 주면 되려 너무 느슨해져 보입니다. 이럴 때는 글자 크기의 1.5배나 1.8배 정도의 행간 값이 적합합니다.

글이 두 줄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경우는 1.2배 정도가 적절합니다. 다만 이 수치들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대개의 상황에서 적용이 가능하지만,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응할 필요도 있습니다.

자간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입니다. 본문의 자간 값이 크면 빈틈이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본문에는 큰 자간 값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보통은 0에서 -50을 줍니다. 한편 제목이나 독립된 문구의 경우에는 큰 자간 값을 주면 눈에 더 잘 띄게 할 수 있습니다.

장평

장평은 글자의 폭입니다. 장평의 값이 작을수록 글자는 날씬해지며, 장평의 값이 클수록 글자는 뚱뚱해집니다. 장평의 값이 작은 글자는 가벼워 보이고 장평의 값이 큰 글자는 무거워 보입니다. 영문의 경우 글자의 형태상 장평 값이 매우 크거나 작아도 읽는데 무리가 없어서 매우 날씬하거나 매우 뚱뚱한 글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글의 경우 글자의 형태가 네모에 가깝다보니 장평 값이 매우 크거나 작을 경우 읽는데 문제가 생기기엔 영문에 비해서 장평 값의 활용 범위가 작습니다.

다만, 한글로 된 본문의 경우는 장평 값을 93~97% 정도로 조금 날씬하게 하여 읽기 편하게 하거나(신문의 경우에는 100%를 초과) 제목이나 로고에 들어가는 글자의 경우에는 장평 값을 100% 초과로 주어서 글자에 무게감을 실어주고는 합니다.

종합

저의 경우 고딕체 폰트는 sandoll 고딕 neo1을 주로 사용하고 명조체 폰트는 sandoll 명조 neo1을 사용하는데, 이 폰트들을 본문에 사용할 경우 행간 값은 글자 크기의 2배, 자간 값은 -25, 장평 값은 97%를 주고, 제목일 경우 상황에 맞게 값을 주는 편입니다. 본 글 본문의 폰트는 sandoll 고딕 neo1이고 행간 값은 더블 스페이스, 자간 값은 -50, 장평 값은 97%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행간, 자간, 장평을 다르게 설정한 예시입니다. 본문의 설명과 오른쪽의 예시를 비교해보며 각 값의 차이가 어떤 시각적 효과를 자아내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행간 값을 글자 크기의 1.2배로

행간은 행과 행 사이의 간격입니다. 행간 값은 보통 글자 크기의 1.2배에서 2배가 적당합니다. 행간 값을 글자 크기의 2배를 주는 것을 더블 스페이스(Double Space)라 부르는데, 책이나 잡지의 본문처럼 줄글이 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행간 값을 더블 스페이스로 주어야 읽기가 편합니다. 면의 대부분이 글자로 가득하면 답답하지만 행의 높이와 여백의 높이가 같으면 행과 행 사이의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본 글 본문의 행간 값은 더블 스페이스를 주었습니다.

행간 값을 글자 크기의 1.5배로

행간은 행과 행 사이의 간격입니다. 행간 값은 보통 글자 크기의 1.2배에서 2배가 적당합니다. 행간 값을 글자 크기의 2배를 주는 것을 더블 스페이스(Double Space)라 부르는데, 책이나 잡지의 본문처럼 줄글이 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행간 값을 더블 스페이스로 주어야 읽기가 편합니다. 면의 대부분이 글자로 가득하면 답답하지만 행의 높이와 여백의 높이가 같으면 행과 행 사이의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본 글 본문의 행간 값은 더블 스페이스를 주었습니다.

행간 값을 글자 크기의 1.8배로

행간은 행과 행 사이의 간격입니다. 행간 값은 보통 글자 크기의 1.2배에서 2배가 적당합니다. 행간 값을 글자 크기의 2배를 주는 것을 더블 스페이스(Double Space)라 부르는데, 책이나 잡지의 본문처럼 줄글이 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행간 값을 더블 스페이스로 주어야 읽기가 편합니다. 면의 대부분이 글자로 가득하면 답답하지만 행의 높이와 여백의 높이가 같으면 행과 행 사이의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본 글 본문의 행간 값은 더블 스페이스를 주었습니다.

행간 값을 더블 스페이스로

행간은 행과 행 사이의 간격입니다. 행간 값은 보통 글자 크기의 1.2배에서 2배가 적당합니다. 행간 값을 글자 크기의 2배를 주는 것을 더블 스페이스(Double Space)라 부르는데, 책이나 잡지의 본문처럼 줄글이 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에는 행간 값을 더블 스페이스로 주어야 읽기가 편합니다. 면의 대부분이 글자로 가득하면 답답하지만 행의 높이와 여백의 높이가 같으면 행과 행 사이의 흐름이 원활해지기 때문입니다. 본 글 본문의 행간 값은 더블 스페이스를 주었습니다.

자간 값 25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입니다. 본문의 자간 값이 크면 빈틈이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본문에는 큰 자간 값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보통은 0에서 -50을 줍니다. 한편 제목이나 독립된 문구의 경우에는 큰 자간 값을 주면 눈에 더 잘 띄게 할 수 있습니다.

자간 값 0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입니다. 본문의 자간 값이 크면 빈틈이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본문에는 큰 자간 값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보통은 0에서 -50을 줍니다. 한편 제목이나 독립된 문구의 경우에는 큰 자간 값을 주면 눈에 더 잘 띄게 할 수 있습니다.

자간 값 -25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입니다. 본문의 자간 값이 크면 빈틈이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본문에는 큰 자간 값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보통은 0에서 -50을 줍니다. 한편 제목이나 독립된 문구의 경우에는 큰 자간 값을 주면 눈에 더 잘 띄게 할 수 있습니다.

자간 값 -50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입니다. 본문의 자간 값이 크면 빈틈이 많아 보입니다. 따라서 본문에는 큰 자간 값을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고 보통은 0에서 -50을 줍니다. 한편 제목이나 독립된 문구의 경우에는 큰 자간 값을 주면 눈에 더 잘 띄게 할 수 있습니다.

장평 값 105%

장평은 글자의 폭입니다. 장평의 값이 작을수록 글자는 날씬해지며, 장평의 값이 클수록 글자는 뚱뚱해집니다. 장평의 값이 작은 글자는 가벼워 보이고 장평의 값이 큰 글자는 무거워 보입니다. 영문의 경우 글자의 형태상 장평 값이 매우 크거나 작아도 읽는데 무리가 없어서 매우 날씬하거나 매우 뚱뚱한 글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글의 경우 글자의 형태가 네모에 가깝다보니 장평 값이 매우 크거나 작을 경우 읽는데 문제가 생기기에 영문에 비해서 장평 값의 활용 범위가 작습니다.

장평 값 100%

장평은 글자의 폭입니다. 장평의 값이 작을수록 글자는 날씬해지며, 장평의 값이 클수록 글자는 뚱뚱해집니다. 장평의 값이 작은 글자는 가벼워 보이고 장평의 값이 큰 글자는 무거워 보입니다. 영문의 경우 글자의 형태상 장평 값이 매우 크거나 작아도 읽는데 무리가 없어서 매우 날씬하거나 매우 뚱뚱한 글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글의 경우 글자의 형태가 네모에 가깝다보니 장평 값이 매우 크거나 작을 경우 읽는데 문제가 생기기에 영문에 비해서 장평 값의 활용 범위가 작습니다.

장평 값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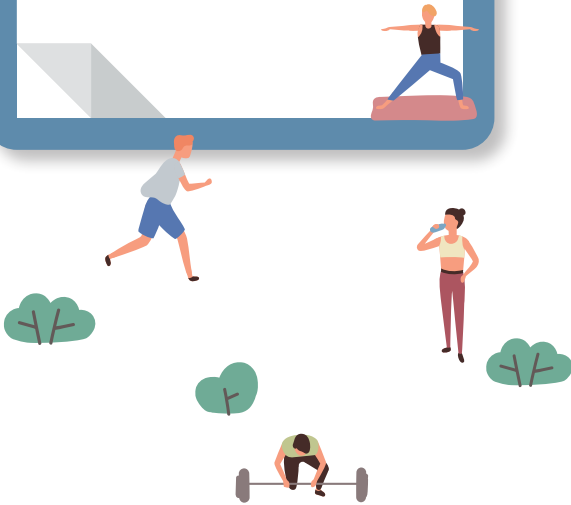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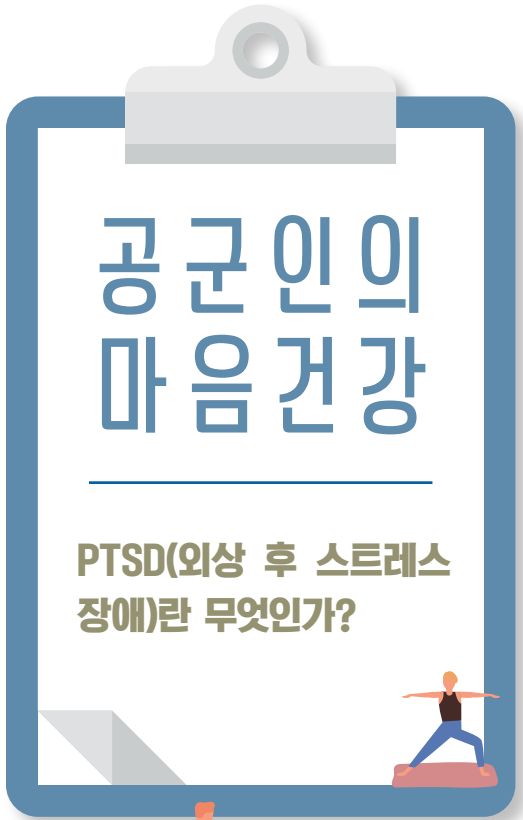
장평은 글자의 폭입니다. 장평의 값이 작을수록 글자는 날씬해지며, 장평의 값이 클수록 글자는 뚱뚱해집니다. 장평의 값이 작은 글자는 가벼워 보이고 장평의 값이 큰 글자는 무거워 보입니다. 영문의 경우 글자의 형태상 장평 값이 매우 크거나 작아도 읽는데 무리가 없어서 매우 날씬하거나 매우 뚱뚱한 글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글의 경우 글자의 형태가 네모에 가깝다보니 장평 값이 매우 크거나 작을 경우 읽는데 문제가 생기기에 영문에 비해서 장평 값의 활용 범위가 작습니다.

장평 값 93%

장평은 글자의 폭입니다. 장평의 값이 작을수록 글자는 날씬해지며, 장평의 값이 클수록 글자는 뚱뚱해집니다. 장평의 값이 작은 글자는 가벼워 보이고 장평의 값이 큰 글자는 무거워 보입니다. 영문의 경우 글자의 형태상 장평 값이 매우 크거나 작아도 읽는데 무리가 없어서 매우 날씬하거나 매우 뚱뚱한 글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글의 경우 글자의 형태가 네모에 가깝다보니 장평 값이 매우 크거나 작을 경우 읽는데 문제가 생기기에 영문에 비해서 장평 값의 활용 범위가 작습니다.



글
심효규 교수
(보라매리더십센터 상담교육팀)



70대 중반의 노신사를 상담한 적이 있다. 이분의 고민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가족에게 폭언과 물건을 던지는 가정폭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술이 깨고 나면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술만 마시면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것이다. 그냥 호소하는 내용만 들었을 때는 알코올중독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상담을 진행하면서 이분이 월남전의 참전 용사이고, 잠을 자려고 하면 그때의 장면이 보이고, 소리가 들리고, 무섭고, 겁나고, 수치스러움을 느낀다는 것, 공포와 불안이 같이 느껴져 이를 잊고 남에게 들키지 않기 위한 방법으로 술을 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TSD)를 가지고 살아온 것이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무엇이기요 오랜 시간동안 노신사와 그의 가족들을 힘들게 한 것일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란, 일반적인 스트레스 수준을 넘어서 강한 외상 사건을 경험한 후 나타나는 심리적 장애를 말한다. 전쟁, 자연재해, 폭행, 성적 공격, 갑작스런 사고 등 죽음이나 신체적 손상을 초래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바로 ‘강한 외상 사건’이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사별, 이혼, 파들림 등도 포함된다. 외상 사건 직후에는, 대부분 충격으로 인한 불안이나 회피, 강한 심리적 동요 등을 경험한다. 일반적으로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보이다가도 일정 시간(약 1~3개월)이 경과하면 외상 사건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가능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회복이 되지 않고 불안 반응 등이 지속될 경우, PTSD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다음의 반응들은 외상 사건 경험 후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반응들이다. 이런 반응들이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거나, 그로 인해 일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PTSD를 의심해 보아야 한다.

공포 혹은 불안 반응 >>	긴장감과 공포,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함 과각성된 상태, 예민함
슬픔 혹은 우울반응 >>	눈물이 쏟아짐, 일상에서 아무런 즐거움 느끼지 못함, 혼자 있으려고 함, 피곤하고 멍한 상태 지속
죄책감과 수치심 >>	사건과 관련, 과도하게 자신을 책임함, 반복적인 죄책감, 수치심
분노와 짜증 >>	동료, 가족에게 이유 없이 화, 짜증, 매사 잘 참지 못하고 작은 일에 폭발
행동변화 >>	과도한 음주, 흡연, 중독, 고립된 생활, 특정 상황 혹은 대상을 회피함, 건강을 전혀 돌보지 않음

표 1. 외상 사건을 경험 후 나타나는 일반적인 증상





다음은 PTSD 진단이 가능한 증상들이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몇 가지 증상만으로 PTSD를 자가진단하는 것은 위험하며 꼭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 **외상 사건에 대한 반복적인 재경험을 하게 된다.**

사건과 관련된 원치 않는 기억이 자주 떠올라 공포와 불안반응을 유발한다. 꿈이나 플래시백(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떠오르는 영상)을 경험하기도 하고, 사건과 관련한 작은 단서(소리, 냄새, 비슷한 사람 등)에도 쉽게 공포와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 **외상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 대상을 반복해서 회피한다.**

외상 기억이 자주 떠오를 것 같아 관련 상황이나 사람을 반복해서 피한다. 심지어 그 일에 대해 얘기하는 것조차 꺼리게 된다. 때로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회피해서 매사에 화가 난 채로 생활하거나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채 멍한 상태가 지속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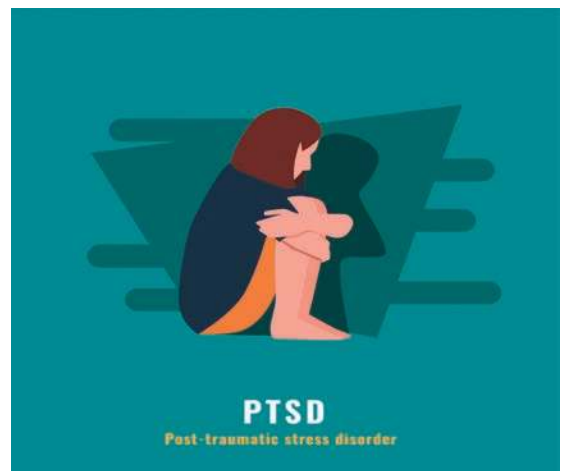
• **과각성 상태가 지속된다.**

마치 벼랑 끝에 몰려 있는 것처럼 매순간 신경이 곤두서있고, 위험물이 있는지 주변을 살피느라 한시도 마음 편할 때가 없다. 갑자기 화가 나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한다. 과각성 상태가 지속되면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고, 어느 곳이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 곳을 찾아 출구 쪽에 앉으려고 한다거나,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화들짝 놀라면서 불안을 경험한다.

이밖에도 아무 의욕이 없는 무망감 상태와 죄책감, 수치심, 절망감을 느끼곤 한다. 이전에 무난히 수행하던 업무가 매우 부담스럽고 힘겹게 느껴지며, 실제 수행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해 직장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로 인해 더욱 의기소침해지면서 외부와 단절한 채 고립된 생활을 지속하는 경우도 있다. 마음의 고통을 잊기 위해 술이나 담배, 게임, 오락 등 중독적 행동에 몰두하면서 일상생활과 건강을 모두 해치는 결과도 나타난다.

PTSD에 대한 치료는 증상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불안, 공포, 우울 등 심리적 증상이 심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렵고, 사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전문의의 처방하에 약물치료를 시작할 수 있다. 약물치료와 병행하거나 혹은 약물치료가 끝난 후에는 다양한 심리상담 치료(인지치료, 노출치료, EMDR 등)를 통해 증상을 개선하며,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도모하여야 한다.

PTSD는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일상으로의 복귀가 가능한 심리장애로, 조기개입 및 본인의 치료의지, 그리고 가족의 지원 등을 통해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PTSD는 영화에나 나오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요즘도 비행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장병, 파병군인, 소방관, 산불이재민, 개인택시기사 등 많은 분들이 상담문의를 한다. 그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용기가 나지 않고, 힘들다.”라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답한다. “지금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이것이 가장 용기 있는 모습이고 치료의 시작입니다.” PTSD는 본인과 가족, 소속기관, 이웃이 함께 할 때 극복할 수 있다. ^{AF}



컬러가 당신을 움직인다 『사고 싶은 컬러 팔리는 컬러』

첫 독자의 편집후기



『사고 싶은 컬러 팔리는 컬러』

이호정 지음 | 라운북 펴냄
368쪽 | 16,000원

미국의 컨설팅 업체 ‘키스메트릭스(Kissmetrics)’에 따르면, 소비자가 제품을 고를 때 이미지에 의존하는 비율은 93%라고 한다. 이는 청각이나 후각(1%), 촉각(6%)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다. 또한, 소비자의 85%는 이미지 중에서도 ‘컬러’를 구매 결정의 주요 이유로 꼽는다.

이처럼 오늘날 이미지, 그중에서도 ‘컬러’의 중요성이 가만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는 글보다는 이미지를 읽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글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인기는 줄어드는 반면 상대적으로 이미지의 비중이 높은 ‘인스타그램’과 ‘핀터레스트’, 그리고 ‘유튜브’의 인기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작가 이호정

국내 게임 회사 ‘넷마블’, 일본 화장품 ‘데코르테’, 미국 헤어 케어 ‘리빙 프루프’ 등 국내외 다양한 분야의 브랜드를 론칭하고 관리해온 브랜드 마케터 이호정

의 지금을 만든 것은 바로 ‘컬러’였다. 10년 전 ‘컬러’에 비전이 있다고 생각한 그는 컬러 공부를 위해 유학길에 올랐다. 일본에서 컬러 코디네이터 1·2·3급을 모두 취득하고, 영국 런던에서 디자인을 공부했다. 그리고 수년을 컬러 전문가로서 기업에서 활동한 결과 ‘컬러 컨셉터’라는 생소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이호정은 이 책에서 “컬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행동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 마법 같은 힘을 가진 컬러를 알고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다면 당신은 상대의 마음을 얻고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말한다. 이 책은 우리가 몰랐던 컬러의 효과를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공간에 오래 머물고 싶게 하는 컬러가 있는가 하면, 빨리 나가고 싶게 만드는 컬러가 있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 같은 패스트푸드 레스토랑의 강렬한 레드 컬러와 밝은 조명은 고객들이 빨리 햄버거를 먹고 나갈 수 있게 한다. 저자는 “채도가 높은 현란한 컬러는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은 것과 같은 효과를 만들어 낸다”라고 설명한다. 반면, 고객이 매장에 체류하는 시간이 길수록 구매 확률이 높아지는 복합쇼핑몰 같은 곳은 채도가 낮은 차가운 컬러와 조명을 사용한다.

더 맛있어 보이는 컬러가 있는가 하면, 향기가 나는 듯한 컬러도 있다. 사람들은 채도가 높은 컬러일수록 더 신선하고 잘 익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소고기를 고를 때 선명한 붉은 빛을 보고 신선함을 판단한다. 컬러의 중요성을 아는 가공식품 제조회사들은 신선한 원재료의 컬러를 재현하기 위해 화학 첨가제나 인공색소를 사용한다. 또한, 사람들은 향수를 살 때 향수의 컬러에서 연상되는 향을 기준으로 시향한다. 향수를 제작하는 회사도 이를 반영해 향에 어울리는 색소를 향수에 첨가한다. 꽃향기는 핑크나 옐로, 감귤향은 옐로나 오렌지, 풀향기는 그린 계열을 사용하는 것이다. 또, 향이 진한 향수에는 채도가 높은 컬러를 사용한다.

비싸 보이는 컬러가 있는 반면, 대중이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는 컬러도 있다. 일반적으로 블랙과 퍼플은 고가를 상징한다. 특히 퍼플은 수천 년 동안 왕족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의 컬러였다. 그런데 최근 패션업계에서는 퍼플보다는 블랙의 프리미엄이 더 높다. 저자는 연회비 80만 원대의 프리미엄 카드를 퍼플 컬러로 만든 ‘현대카드’, 그 병을 블랙과 골드로 장식한 ‘사포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오일’을 예로 들었다. 반대로, 대중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컬러는 옐로와 오렌지 등 주로 명도가 높고 탁함 없는 틴트 컬러의 조합으로 만들어진다. ‘네슬레’가 2006년 커피의 대중화를 위해 만든 브랜드 ‘돌체 구스토’의 비비드한 캡슐 컬러를 예로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이 책에는 ▲지갑을 빠르게 열게 만드는 컬러 ▲특별한 날에 어울리는 컬러 ▲스토리가 있는 컬러 ▲여성의 마음을 훔치는 컬러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컬러 ▲입소문을 퍼뜨리는 컬러 등 다양한 컬러와 그 효과에 대해 이야기한다. 향후 당신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컬러, 그 감각을 길러보는 것은 어떨까? **AF**

01.



『감정을 팔아라』
김해룡·안광호 지음 | 원앤원북스 펴냄
252쪽 | 15,000원

02.



『맥락을 팔아라』
정지원·유지은 지음 | 미래의창 펴냄
312쪽 | 17,000원

01. 감정 마케팅이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나 어떤 대상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심어줘 소비로 연결시키는 활동이다. 그저 좋은 감정만 선사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다. '즐거워, 행복해, 자랑스러워, 사랑해' 같은 특별한 감정들로 브랜드만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의 부정적인 감정을 관리하는 것도 감정 마케팅의 일환이다. 소비자 감정 연구와 브랜드 전문가인 김해룡 교수와 마케팅 학자 안광호 교수는 이 책에서 성공적인 감정 마케팅 방법들을 소개한다.
02. 마케터와 기획자가 읽어내야 할 것은 상품을 잘 포장해 파는 방법이 아니라 숨겨진 소비의 맥락이다. 요즘 고객은 단순히 상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상품에 담긴 스토리를 사고 있다. 이 책의 저자는 '72초 드라마', '넷플릭스' '메이크업', '대림미술관', '몰스킨 카페', '삼거리포차', '초코파이 에코백', '퀸마미마켓', '팬톤 카페', '페이스북', '뉴스룸' 등 36가지의 키워드의 맥락을 읽고, 고객의 취향을 저격하는 방법을 설명한다.

철학, 군인정신을 말하다

눈앞의 승리 말고 최후의 승리에 집중하라.
- 노자에게 배우는 '상선약수' 전략



글·사진

인광복
(중동고 철학교사,
철학박사)

눈앞의 승리 말고 최후의 승리에 집중하라.

- 노자에게 배우는 '상선약수' 전략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

한신(韓信, ? ~ BC 196)은 매우 뛰어난 장수였다. 한(漢)나라 군대가 초(楚)나라를 꺾자, 황제가 된 유방(劉邦, BC 247?~195)이 한신에게 물었다. “귀하가 보기에 내가 직접 전투에 지휘한다면 나는 부하 몇 명이나 감당할 것 같소?” 한신은 이렇게 답했다. “제가 보기에 폐하는 십만 군대까지 통솔하실 만합니다.” 다시 유방이 물었다. “그대는 몇 명까지 가능하오?” 한신은 가슴을 펴고 대답했다. “저는 병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다다익선多多益善)” 유방이 껄껄 웃으며 말을 받아쳤다. “그렇다면 귀하는 나보다 나은 장군일 텐데 왜 내 밑에 있

는 거요?” 한신의 대꾸는 이랬다. “폐하는 군사를 거느리는 일에서는 저보다 못합니다. 하지만 장수를 부리는 데서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지 않으십니까?”

한신은 매우 신중한 장군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큰 뜻을 감추기 위해 불량배의 가랑이 사이로 기어 지나가기까지 했다. 동네 사람들은 배알도 없다며 그를 멸시했지만 한신은 개의치 않았다. 이렇듯 큰 뜻을 품은 자는 소소한 일에 감정을 앞세우지 않는다. 하지만 초나라를 꺾은 한신은 겸손함을 잊어버렸다. 그는 한나라를 세운 공이 자신에게 있다고 빼기고 다녔다. 이랬던 한신이 자신의 통솔 능력을 낮추어보는 듯한 말을 하자, 유방은 무척 마음이 상했다. 한신은 결국 반란혐의를 받아 처형당한다.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를 삶아 먹는다라는 ‘토사구팽(兔死狗烹)’이라는 고사는 여기서 나왔다.

“공명심, 군인정신의 아킬레스건”

부자가 되려고 군인을 꿈꾸는 모습은 이상하다. 군인이 사업가는 아니지 않는가. 군인에게 최대 보상은 명예와 인정이다. 하지만 이 점은 군인 정신의 ‘아킬레스건’이 되기도 한다. 공을 세우고 이름을 떨치려는 욕구가 너무 강할 때 스스로를 위기에 빠뜨리기 때문이다. 을지문덕(乙支文德, ?~?)은 공명심에 휘둘리는 군인의 마음을 잘 헤아렸다. 수양제(隋煬帝)의 30만 대군이 고구려를 쳐들어 왔을 때, 그는 늘 싸움에서 졌다. 심지어 수나라 군대는 하루에 일곱 번 싸워 일곱 번 모두 이겼을 정도였다. 그럴수록 수나라 장수들의 마음은 조급해졌다. 가장 먼저 평양성에 들어가야 최고의 장군이 되지 않겠는가. 심지어 보급을 맡은 수군(水軍)까지도 허겁지겁 평양성 공격에 뛰어들었다. 성급한 진격에 전선은 길어졌고, 보급선마저 끊어진 수나라 군대는 마침내 지쳐 버렸다. 살수대첩의 큰 승리는 을지문덕이 펼친 심리전의 결과라 할 만하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노자(老子, ?~?)



◀ 한나라의 장군 한신은 초나라를 꺾은 후 반란혐의를 받아 ‘토사구팽’ 고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고대 중국의 철학가이자 사상가인 노자는 '물처럼 사는 삶'을 강조했다. ▶

의 가르침이 왜 군인 정신을 가꾸는 데 꼭 필요한지가 이해될 듯싶다.

“오래 가는 자가 강한 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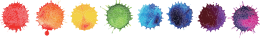
노자(老子, ?~?)는 중국에서 손자(孫子, ?~251)에 견줄 만한 전략가로 해석되어 왔다. 동양학자 임건순은 노자가 쓴 <도덕경>을 아예 <노자병법>으로 소개할 정도다. 노자는 끊임없이 “낮추어라(下)”, “뒤로 물러서라(後)”, “뒤지 마라(不先)”, “나서지 마라(不自)”를 강조한다. 왜 그럴까? 노자에 따르면 바람직한 삶이란 물과 같이 사는 것(상선약수: 上善若水)이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되는 이유는 아래에 있으려하기 때문이다.” 노자는 이렇게도 가르친다. “강한 자가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자가 강한 자다.” 이른바 천장지구(天長地久)와 장생구시(長生久視) 사상이다. 하늘은 넓고 땅도 끝이 없으니, 오래 살며 길게 보라는 의미다. “회오리바람이 아침나절을 넘기지 못하고 폭우는 길어봤자 한나절일 뿐이다.” 어떤 힘든 상황도 끝없이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아무리 꽃도 예쁘게 피어 있는 시기는 10일이 못 되고(花無十日紅) 권력도 10년을 못가는 법이다(權無十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한 때일 뿐이다. 그래서 노자는 “강한 것이 오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가는 것이 강하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패하지도 멸망하지도 말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라.”

동양철학자 임건순은 노자의 가르침을 잘 실천한 인물로 마오쩌둥(毛澤東, 1893~1976)을 꼽는다. 마오쩌둥은 국민당 군대에 쫓겨 늘 내몰렸다. 징강산 외진 마을에 모였을 때, 그의 군대 모습은 거지 떼와 다름없었다. 그러나 마침내 마오쩌둥은 중원을 차지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유비(劉備, 161~223)도 다르지 않았다. 그에겐 ‘비굴’과 ‘도망’이 주특기이다시피 했다. 나아가, 나이 50세가 되어서도 변변치 않은 처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럼에도 유비는 마침내



천하의 균형을 이루는 인물이 되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쫓겨나고 밀려났긴 했어도, 최후까지 지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끝까지 살아남아라. 참고 참으며 때를 기다려라. 물처럼 자연스럽게 상황을 받아들이고 자신을 낮추고 감춰라. 그러다 보면 기회가 올 것이다. ‘노자병법’은 이 한마디로 요약될 듯싶다. 노자의 가르침은 군인들을 위한 처세술(處世術)로도 손색이 없다. 군대는 승진 경쟁이 치열하고 그만큼 공을 둘러싼 논란이 많은 곳이다. 노자는 ‘현(玄)’을 끝없이 강조한다. 드러나지 말고 늘 자신을 감추라는 뜻이다. 완전히 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한, 아직 패하지 않았다. 그러니 순간의 공명심에 휩싸여 욕심 부리지 말고, 꾸준히 노력하며 때를 기다려야 한다. 중요한 것은 눈앞의 승리가 아니라 최후의 승자가 되는 것이다. “오행(五行, 물, 나무, 불, 흙, 쇠) 중 항상 이기는 것은 없으며, 사계절 또한 항상 들고 돈다. 낮에도 길고 짧음이 있으며 달에도 차고 기움이 있다.” “군대가 강하기만 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단단하기만 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스스로를 낮추고 물러서며 다른 이들이 능력을 충분히 펼치도록 도움을 주라. 이러는 가운데 나를 위한 기회와 자리도 찾아오게 되어 있다. 불량배의 다리 밑을 거침없이 기었던 시절의 한신과, 교만함의 끝에 이르렀던 시기의 한신을 견주어 보며 마음을 다잡을 일이다. AF

생각하는 그림 

도박사의 오류

생활관 동기와 동전 던지기로 내기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만약 9번 연속으로 동전의 앞면이 나왔다면, 여러분은 다음 차례에 앞면, 뒷면 중 어디에 돈을 거실건가요? 많은 사람들이 9번이나 앞면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엔 뒷면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하지만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은 똑같이 각각 2분의 1이기 때문에 어떤 면이 나올지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도박에서 돈을 계속 잃기만 한 사람은 다음번에는 마치 돈을 딸 거라고 확신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앞 사건의 결과와 뒤 사건의 결과가 서로 독립적이고, 자신에게 결과에 대한 통제권이 없음에도 막연히 결과를 예측하는 현상을 '도박사의 오류'라고 합니다.

실제로 1913년 모나코의 몬테카를로 보자르 카지노에서 도박사의 오류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카지노의 룰렛 게임은 구슬이 든 룰렛을 돌려 구슬이 검은색 판에 떨어질지, 빨간색 판에 떨어질지 예상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검은색 판과 빨간색 판의 범위는 정확히 일치해서 확률은 50:50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슬은 20번 연속으로 검은색 판에 떨어졌고, 게임 참가자들은 이제 붉은색 판에 떨어질 차례라며 붉은색에 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구슬은 여섯 번이나 더 검은색 판에서 멈췄으며 결국 사람들은 수많은 돈을 잃게 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포탄이 떨어진 자리에는 다시 포탄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속설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포탄이 날아오면 이미 폭격당한 자리로 피하라는 조언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포 전문가와 수학자들은 이것이 전혀 근거 없는 말이라며 이를 도박사의 오류와 같은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적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는 군인으로서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막연한 예상'일지도 모릅니다. 일상생활에서 도박사의 오류로 인한 피해는 개인 수준의, 경제적 피해이지만 안보상황과 관련되어 피해를 볼 경우 전국민의 생명과 재산까지 위협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보상황은 근거 없는 예상이나 짐작이 아닌, 정확한 정보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을 통해 판단되어야 합니다. 공군인 여러분, 혹시 도박사의 오류에 빠지고 있지는 않았나요? AF



● 기준의 기준 영화관에서 휴대폰을 봐도 될까

히어로무비 팬들이 기다려왔던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극장을 휩쓸었다. 이 영화를 정말 기다려왔던 한 명의 팬으로서 여자친구에게 영화를 보러가자고 말하려던 순간 말이 막혔다.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상영시간은 181분이다. 영화 시작 전 광고 시간 등을 합치면 세 시간을 거뜰히 넘기는 러닝타임이다. 그리고 내 여자친구는 히어로무비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에게 세 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다. 영화관이라는 공간이 그렇다. 침묵을 강요하고 휴대폰을 보아서도 안 된다. 그런 공간에서 좋아하지도 않는 영화를 3시간 동안이나 보게 만드는 것은 고문이나 다름없다. 마치 군대가 오기 싫은 곳으로 여겨지는 순간 22개월의 복무 기간이 답답하고 지루하게만 느껴지는 것처럼. 영화평론가 정성일 씨의 말에 따르면, 10대들이 영화를 극장에서 보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 '두 시간 동안 휴대폰을 꺼놔야 하기 때문'이라는 대답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실제로 영화 관람객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해서 줄고 있다. 댓글은 '요즘 청소년들 보면 정말 심각해요,' '휴대폰 무섭네요,' '정말 중독이 심한 듯'이라는 등 10대를 스마트폰 중독 환자 보듯이 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꼭 휴대폰의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는 이제 한 가지 일에 몰입하고 모든 열정을 쏟는 것보다, 여러 분야에 두루 관심을 가지고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것에 더 익숙하다. 나 또한 TV를 보면서 휴대폰을 만지고, 노래를 들으면서 책을 읽는다. 도서관에 앉아서 세 시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책만 읽으라고 한다면 즐거워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영화도 마찬가지다. 영화는 줄글로 된 책보다는 시각적·청각적 자극이 다양하게 활용되지만, 책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집중력을 요구한다. 그리고 이 집중력을 끝까지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에너지가 든다.


실제로 2016년 4월 미국의 메이저 멀티플렉스인 AMC의 대표 애덤 아론(Adam Aron)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몇몇 상영관에서는 영화 상영 도중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쓰고 확인하는 것을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영화관 모드' 기능이 있는 휴대폰이 나올 것이라는 루머도 있었다. 지루한 것을 견디지 못하고 한 번에 여러 콘텐츠를 소

비하는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 반영된 것이다. 과거에는 영화관에서 번사가 영화를 설명해주고 음악단이 연주를 했던 것에 반해 현대의 영화관에서는 완전 정숙을 요구하게 된 것처럼, 영화관 에티켓은 언제든지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휴대폰을 꺼놔야 하기 때문에 극장에 가지 않는다는 대답이 영화관에 가서 주야장천 휴대폰만 만지고 있고 싶다는 의도는 아니다. 영화를 보다가 아주 잠깐 메신저나 SNS를 확인하고 싶을 뿐이다. 물론 휴대폰 빛으로 다른 관람객에게 피해를 준다면 휴대폰 사용은 금지되어야겠지만, 영화를 보면서 스마트폰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관객의 심리자체를 '스마트폰 중독'이라며 잘못된 것으로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영화관이 아니라 군대라고 생각해보자. 군복무에 자신의 모든 정신을 쏟는 장병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군복무 중에도 누군가는 전역 후의 취업 문제로, 학비 문제로, 관계 문제로 걱정한다. 생활관 동기들끼리 장난도 치고 좋아하는 이성친구와 연애도 꿈꾼다. 그렇다고 그게 군생활에 소홀하다는 뜻은 아니다. 이런 걱정, 유희도 영화관에서 휴대폰 사용을 하는 것처럼 그저 잠깐 집중을 다른 데로 돌렸다 돌아오는 일인 것이다.

22개월이라는 러닝타임 동안 수백 수천 명의 관객이 똑같이 하나의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 영화관이 있다면 매우 답답하게 느껴질 것이다. 게다가 상영되는 영화가 의무로 봐야 하는 영화라면 더욱 그럴 것이다. 관객을 괴롭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매우 재미있고 유익한 영화를 틀어주거나, 관객이 남에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자신만의 방법으로 쉬는 것을 허락해주는 것이다.

영화관에 가지 않는 10대를 스마트폰 중독자로 낙인찍기보다 그들의 새로운 문화를 이해해야 하듯이, 군복무 중에 생기는 다양한 생각들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군복무라는 영화 한편을 보면서 여자친구의 전화를 기다릴 수도 있고, 취업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다. 그러다 모두 이내 다시 영화에 집중할 것이다. 관객이 잠시 다른 생각을 해도 영화의 가치는 떨어지지 않는다. 군대라는 영화관을 나설 때 관객들의 만족스러운 표정을 위해, 관객들이 더 편안한 마음으로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2019
06
492

우편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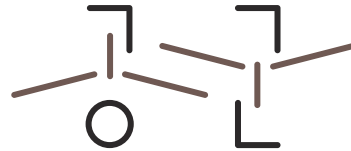
요금
수취인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5.12.1~2019.11.30
제501군사우체국
제32333-40027호

보내는 사람

이름 : _____ 연락처 : _____

도로명 주소 : _____

□□□□□□



받는 사람

충남 계룡시 신도안면 계룡대로 663
군사우체국 사서함 501-309호
월간 「공군」 편집실

3 2 8 0 0

‘담벼락’이 ‘공군인의 편지’로 바뀌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월간 『공군』이 우체부가 되어
‘공군이 내놓은 아이템’과 함께 전달해드립니다.

월간 『공군』의 구독을 희망하시거나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분야 : 글, 그림, 출연

인트라넷(E-mail) : wittyyo@af.mil
인 터 넷(E-mail) : afzine@korea.kr
전화번호 : 042-552-6943

독자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을 기다립니다.

<‘의견’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가장 좋았던 원고는? 더 알고 싶은 이야기는?
월간 『공군』에 건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가족에게, 전우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이제 월간 『공군』 엽서를 보내보세요.
위의 엽서에 쓰고, 자르고, 부치면 끝!

채택된 엽서는
월간 『공군』 지면을 통해 소개해드립니다.
또한 별도 추첨을 통해
‘공군이 내놓은 아이템’도 보내드립니다!



마감일 : 6월 30일까지

2019 공군 창의·혁신 아이디어 공모 해커톤

공모 기간 ~ 2019년 7월 13일(토) 12시(정오) 참가 대상 대학생, 공군장병
멘토링 2019년 7월 4주~5주 중 1일 주 제 항공작전/기지방호/무기정비/
본 선 2019년 8월 1주 중 2일 작전지원/병영복지
상장/상금 대상 500만원 등 접수방법 해커톤 홈페이지 양식 다운받아
총 상금 1250만원 작성 후 접수



월간 「공군」은

독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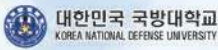
『공군』에 대한 감상, 지면을 통해서 전하고 싶은 사연을 보내주세요.

Blank lines for writing a letter or comment.



대한민국공군
REPUBLIC OF KOREA AIR FORCE

2019
06
4 9 2



www.kndu.ac.kr

국가안보정책·전략의 중심 국방대학교

KNDU

1 국방관리대학원

석사과정
주간 : 2년 / 야간 : 2.5년
박사과정
주간 : 3년

2 석사/박사(주간)

본교(논산)
전 공 : 안보정책·군사전략·
국방관리·군수조달·리더십·
군사운영분석·컴퓨터공학·
무기체계·복합학·사이버전
협동과정

3 석사(야간)

본교(논산) / 서울캠퍼스(용산)
전 공 : 안보정책·국방전략·
국방사업관리·국방자원관리·
국방정보관리(논산)

4 학생선발 문의

문의전화 : 041-831-3114
2019년도 하반기 야간선발
모집공고 : 5월 / 접수 : 5~6월
2020년도 상반기 주(야)간선발
모집공고 : 9월 / 접수 : 10월





「마음의 소리」



강주찬 (부산시 해운대구)

그리운 아들에게. 안녕! 그리고 보고 싶은 아들이! 올해 시작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6월이구나. 세월이 빨리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들도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다. 작년 말 자대로 면회 갈 때 아빠 공군 복무 시절 기념 앨범을 가져가서 추억을 나누던 일이 생각나네... 아들이! 아빠는 너를 생각하면 더우면 더워서 걱정이 되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어서 걱정이 된다. 우리 아들 아무쪼록 전역하는 그날까지 훈련, 근무 잘 수행하고 능률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길 빌게.

편집실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 편집실은 감동했습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님들은 언제나 자녀가 건강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같겠지요. 아드님께서도 능률한 모습으로 복무를 마치고 전역을 한 뒤에는 함께 월간 『공군』을 보며 추억을 나뉘보셔도 좋겠습니다.



김규연 (부산시 동래구)

4월호 기획특집을 읽고 병사들이 군대 내에서도 일과 후에는 휴대폰을 쓸 수 있고 월 2회까지 외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획기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으로 여겨집니다. 비록 군대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무조건 폐쇄적인 문화보다는 소통과 자유를 허용함으로써 사회와 지나치게 유리되지 않도록 가족과 친구의 소식도 들으면 더욱 효율적이고 열정적으로 근무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편집실 그야말로 '혁신적'이라고 평가받으며 시작된 병사들의 일과 후 휴대폰 사용과 평일외출은 점점 자연스러운 병영 풍경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월간 『공군』은 변화하는 공군의 병영 풍경을 조명하고, 공군만의 멋진 문화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최애림 (김해시 삼방동)

생각하는 그림 '137점 만점에 96점'을 읽고 사람이 언제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합리성이 인간을 설명하는 유일한 기준이 아니기에 여러 가지 다각도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장 합리적인 선물이 현금일지라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일을 함께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이에는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편집실 사람이 합리적이기만 했다면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합리적이지 않은 일일지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기뻐한다면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거겠지요. 한편으로는 그게 오히려 '합리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해롭습니다. 모쪼록 부모님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박숙희 (강원도 원주시)

월간 『공군』을 구독하게 된 계기는 10살 손주가 어려서부터 비행기를 너무나 좋아하고 사랑해서 손주와 같이 비행기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습니다. 달마다 손주와 함께 월간 『공군』을 함께 보면서 이제는 비행기뿐만 아니라 조종사에도 지대한 관심을 갖는 손주가 기특합니다. 이젠 『공군』이 오면 저보다 더 좋아합니다.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정독하며 커서 파일럿이 되겠다는 준호가 대견스럽습니다.

편집실 손주와 함께 월간 『공군』을 읽으시는 그 모습은 훗날 파일럿이 된 손주에게 큰 추억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10살배기 어린 독자가 『공군』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꼼꼼히 읽는 모습을 상상하니 '더 좋은 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솟아납니다. 앞으로 준호 어린이가 꿈을 향해 가는 길에 『공군』이 함께하겠습니다.





4 9 2